



스마트폰으로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부산진구신문 홈페이지에 자동 연결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난해 보기 등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발행처 : 부산진구 / 편집 : 부산진구신문 편집위원회 / 인쇄처 : 부산일보사

news.busanjin.go.kr

제224호 · 2015년 10월 23일 금요일

‘천원의 사랑 만인의 행복’ 참여 확산

(부산진구 소액기부운동)

어르신·기초수급자도 기부

부산은행 부전동지점 129계좌

SK텔레콤 직원 86계좌 후원

10월 중순 6,500계좌 달성

부산진구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이수경)가 공동진행하는 민간협력 소액기부운동 ‘천원의 사랑 만인의 행복’에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천원의 사랑! 만인의 행복!’ 사업은 서울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처럼 법이나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진구와 어린이재단이 추진하는 소액기부운동이다.

이 운동은 한 사람이 1계좌를 지정해 계좌당 1,000원을 매월 기부하는 사업이다. 희망자에 따라 매월 1천원씩 후원을 해도 되고 2천원, 3천원 등 천원 단위로 더 많이 후원할 수 있다. 부산진구는 월 5천만원의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원의 사랑’ 운동이 시작된 지 열흘 만인 지난 9월 20일에는 2,400계좌였으나 한 달여 만인 10월 20일 총 후원계좌는 6,500계좌에 달하고 있다. 한 달 만에 후원계좌가 3배가량 늘어날 정도로 참여가



부전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원들이 ‘천원의 사랑 만인의 행복’에 후원을 약속하는 계좌를 개설했다.

줄을 잇고 있다.

후원자 가운데는 소득이 거의 없는 어르신이나 기초수급자도 있다. 한 어르신은 “돈벌이도 못하고 자식들한테 용돈을 받고 있는 처지지만 한 달에 천원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후원 대열에 동참했다. 이 어르신은 “다른 사람한테는 천원이 별 것 아니겠지만 나한테 천원은 다른 사람의 십만 원이고 백만 원 같은 돈이니 헛되게 쓰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잘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기초수급자는 “나랏돈을 받아서 살

고 있는 사람이라 염치없지만 나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데 한 달에 천 원은 얼마든지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후원계좌를 개설했다.

한 회원은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천원이라도 후원 신청을 해서 아이들이 기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며 아이 이름으로 후원을 약속했다.

개인뿐만 아니라 부산진구 지역 업체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이생내과와 이롬여성의원을 시작으로 춘하추동밀면, 성일유통, 원조나지할매집, 금복, 금호횃집, 롯데노래방, 초원가든, (주)세정건

실, 송담추어탕 등 의료기관과 유명 음식점이 후원 대열에 동참했다.

‘천원의 사랑’ 운동이 전개된다는 소식을 들은 (주)영광도서 직원들이 78계좌를, SK텔레콤 부산지사 직원들이 흔쾌히 86계좌를, 부산은행 부전동지점 직원 31명이 129계좌를 후원키로 하는 기쁜 소식도 들려왔다.

어린이재단 이수경 부산지역본부장은 “이 사업은 사회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행정기관의 협력사업으로 아주 긍정적인 모델이다”라고 말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소액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 후원을 선택하기 어려웠던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진구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천원의 사랑’ 운동을 통해 마련된 기금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주민, 공적지원 제외자 중 도움이 필요한 주민, 법적 지원이 부족한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천원의 사랑 만인의 행복’ 운동 참여 희망자는 구청 희망복지과, 또는 가까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정기계좌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 희망복지과 서비스연계계 (605-4352),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 (505-3117)



부산진구청 광장은 지금 국화향기 ‘물씬’

부산진구청 정문 광장에 국화향이 진하게 풍기고 있다. 부산진구는 방문객들에게 가을 정취를 선사하기 위해 10월 중순부터 구청광장에 노랑, 하양, 보라 등 형형색색의 국화로 정원을 조성했다.

10월 20일에 접어들면서 국화가 조금씩 꽃을 피우며 만개해 가는 모습을 보여 더욱 멋진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이같은 모습에 인근 주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국화정원을 찾아오고 있다. 방문객들은 다양한 국화를 구경하고 국화향도 맡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는 중이다.

어린 딸을 데리고 온 엄마는 물론이고 친구들과 손을 잡고 온 학생, 이웃과 함께 구경을 찾은 동네 여성들은 사진촬영에 여념이 없다. 지금 부산진구청은 전국 구청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다. 문의 : 지역경제과 도시녹화계 (605-4535)

백양산 걸으며 가을의 여유 즐기자

숲길 슬로워킹 및 갈매길 걷기대회 개최

11월 1일 어린이대공원에서… 경품 푸짐

부산시민들이 즐겨찾는 백양산 산책로를 걸으며 가을정취도 느끼고 피톤치드도 마음껏 마시며 가족, 친구, 연인, 이웃과 오순도순 정담에 나눌보자. 뜻밖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행운도 기다린다.

부산진구 생활체육회(회장 성일경)는 가을이 깊어지는 11월 1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부산의 명산 백양산에서 ‘2015 백양산 숲길 슬로워킹 및 갈매길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참가해 부산에서 가장 걷기 좋은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가을의 여유를 즐기는 대회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전 8시 30분까지 어린이대공원에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앞 광장에 집결하면 된다. 이어 9시 10분까지 경품응모권을 받고 간단한 준비운동과 행사 관련 안내사항을 들은 뒤 9시 40분에 출발, 갈매길 6-2구간을 걸으

면 된다.

걷기 코스는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을 출발해 금제합학습센터, 비룡폭포를 지나 반환점인 바람고개를 돌아 또다시 비룡폭포, 금제합학습센터를 거쳐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참가자들은 반환점인 바람고개에서 경품투어함에 응모권을 넣으면 된다.

천천히 걸어도 12시 정도면 모두 출발지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 12시부터는 도착지점에서 푸짐한 경품추첨을 한다. 경품은 추첨을 통해 약 150여명에게 주어진다. 경품은 생필품, 운동용품, 각종 생활가전제품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당일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없다.

문의 : 부산진구 생활체육회 (605-4999, 804-9898)

유열 초청 토크콘서트	2명	부산진구 관광지도 배부	5명
부산진구 야담	7명	왕비의 잔치 인기	8명

김광희 부산진구 부구청장 취임

부산진구는 10월 12일 구청 대강당에서 김광희(金光熙) 부구청장(사진) 취임식을 개최했다. 부산시의 인사에 따라 안종일 전임 부구청장은 부산시청 기획행정관으로 발령났다.

신임 김광희 부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기획관 기획담당 사무관, 관공진흥과장,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민방위과장, 부산광역시 기획재정관, 문화관광국장 등 정부와 부산시의 주요 부서를 차례로 거쳐 이번에 부산진구 부구청장으로 취임했다.

특히 김광희 부구청장은 젊은데다 매사 일처리가 합리적이고 유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부산의 중심구인 부산진구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취임식에서 김광희 부구청장은 “전



국 최초 5선 구청장임을 모시고 뛰어난 열정과 능력을 지닌 900여 부산진구 직원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든든하다”며 “부산진구의 특성을 살린 미래 가치 창조에 힘쓰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문의 : 행정지원과 총무인사계 (605-4112)

“10대들의 예술재능 감상하세요”

제8회 부산진구 청소년예술제 10월 28~30일

청소년들이 예술재능을 마음껏 과시하는 행사가 개최된다. 부산진구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구청 대강당과 백양홀, 1층 로비에서 제8회 부산진구 청소년예술제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청소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음악, 미술, 문학실력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끼도 보여주는 행사다.

청소년예술제 첫날인 10월 28일 오후 6시부터는 구청 대강당에서 개막식 및 개막공연이 펼쳐진다. 개막공연에서 청소년들은 발레, 시낭송, 바이올린 연주, 플루트 연주, 합창, 청소년오케스트라 등의 공연을 펼치며 그동안 배운 예술장부의 성취도를 보여준다.

이와 함께 한복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한복의 재탄생’을 주제로 청소년들

이 리플한 한복을 입고 멋진 자태를 보여주는 한복 패션쇼를 개최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국악실내와 초청공연, 신기한 마술공연 등도 마련돼 눈길을 끌 전망이다.

예술제 기간동안 백양홀에서는 청소년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회에는 청소년예술학교 미술·서예·문학반 학생들이 만든 아크릴화, 수채화, 서예, 시화, 문집 등 9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재미있는 체험코너도 운영된다. 구청 1층 로비에 오면 냅킨 가방, 석고 방랑제, 테라리움(식물 심기), 압화 열쇠고리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고 부산마용고등학교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네일아트 등의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문의 : 문화관광체육과 예술진흥계 (605-4634), 청소년예술학교 (605-4747)

EVERYDAY FRESHNESS

Always

KIM'S CLUB MARKET

Good for you

HEALTHY EATING

신선한 상품과 합리적인 가격의

도심형 글로벌 마켓 ‘김스클럽’

NC서면점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을 소개합니다

파트너십을 맺은 농장에서 오늘 수확한 유기농, 무농약의 친환경 농산물

전세계 유명산지에서 직배송해 즉석에서 찌 주는 크랩&랍스터

캠핑장과 집에서도 고급 레스토랑의 맛을 느끼실 수 있는 캠핑&스테이크

캔디, 초콜릿, 젤리 등 전세계의 달콤한 간식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스위트존

홈메이드 스타일로 만든 일식목장의 숲골우유 & 치즈

그외의 10가지 신선하고 합리적인 상품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NC서면점 김스클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92 NC서면점 1층 김스클럽 T) 051-794-7040~1



성인문해교실 어르신들 생애 첫 수학여행

명찰 달린 교복 입고

불국사 등 경주 탐방

부산진구는 지난 10월 16일 (사)나눔재단의 후원으로 부산진구 평생학습관 한글교실 수강생과 관내 성인문해교육기관 수강 어르신들 등

80여명을 모시고 '생애 첫 추억의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사진) 수강생들은 명찰 달린 교복을 입고 점심대, 불국사 등 경주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시대적·경제적 사정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해 남들이 가는 수학여행을 멀리서 부러워해 아만 했던 아쉬움을 날려버렸다.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사진을 찍

으며 여고생이 된 것처럼 즐거워했고 내년에도 수학여행을 한번 더 가지며 행복해했다.

부산진구는 지난 9월 24일 (사)나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수학여행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문의 : 행정지원과 평생교육계 (605-4875)

제400차 민방위 훈련 '실전처럼'

부산진구 전역 화재대피·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부산진구는 제400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10월 15일 오후 2시 부산진구 전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화재대피 훈련 등을 실시했다.

부산진구는 구 단위 1개 구간과 동 단위 2개 구간을 설정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중점 실시했다. 구 단위에서는 부산진소방서와 합동으로 구정을 출발해 어린이대공원과 국립부산국악원을 경유, 다시 구청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설정해 훈련을 실시했다.

동단위에서는 당감1동과 개금2동이 인근 소방파출소와 협의해 훈련을 실시했다.

화재대피 훈련도 실시했다. 이날 가야2동주민센터 (동장 이성현)는 부산진구청, 부산진소방서, 부산진경찰서와 연계해 가평초등학교 3~6학년 학생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발생시 필요한 민방위훈련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상황에 맞춰 질서 있게 대피하며 훈련을 충실히 수행했다.



가평초등학교에서 실시된 화재대피훈련.

신나는 예술여행 함께 떠나요

가수 유열 진행 '어린이공연 토크 콘서트' 개최

11월 2일 구청 15층

부산진구가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2일 구청 15층 다목적실에서 학부모 160여명과 함께 엄마·아빠를 위한 어린이공연 토크콘서트 '엄마, 나 어떤 공연 먹을까?'라는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신나는 예술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재단법인 어린이공연문화

재단(이사장 유열)이 주관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의 삶이 문화의 향기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수한 예술단체가 전국 곳곳! 동네방네! 직접 찾아가 예술을 주제로 함께 소통하는 사업이다.

유열 이사장은 1986년 제10회 MBC 대학가요제로 데뷔한 가수이며 현재 어린이 공연문화재단 '행복한 아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유열 이사장은 "좋은 공연 한 편이 아이들의 예술적 감성과 창의력을 키운다"며 이번 토크 진행

자로 나와 전체 행사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토크와 함께 극단 하땅세의 '멋진 선물' 공연이 펼쳐지고 어린이 문화연대 이주영 대표와 하땅세 윤시중 대표의 강연도 펼쳐진다. 강연에서는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신청은 부산진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http://lll.busanjin.go.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지원과 평생교육계 (605-4872)



어르신 자서전 쓰기 '착착 진행'

10월 6일 첫 강좌... 2016년도 자서전 발간 예정

부산진구는 10월 6일 '어르신 자서전 쓰기 교실' 첫 강좌를 시작했다.

어르신 자서전 교실은 지역 어르신들의 추억은 물론이고 삶 속에 녹아있는 과거의 시대상황, 당시 생활상, 삶 속의 지혜 등을 후손들에게 남겨 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자서전 교실은 매주 화·금요일 2시간씩 부산진구 평생학습관에서 총 22회 운영된다. 글쓰기 전문 강사인 부산공연사연구소 김문홍 소

장의 지도로 자서전 쓰기 연습을 하게 된다.

부산진구는 2016년도에는 '어르신 자서전 쓰기 공모전'을 개최해 당선된 10명의 자서전을 공동문집 형태로 발간하고 발표회를 가질 계획이다. 가장 '부산진구 지역 어르신 자서전'은 1인당 20여 페이지, 총 200페이지 분량으로 100부가 발간돼 동주민센터의 작은 도서관 등에 배부된다. 문의 : 행정지원과 평생교육계 (605-4872)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 일원화

재건축 연한 최장 40년→30년으로 단축

규제개혁

○...아파트 청약통장이 '주택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기존에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과 더불어 2009년 4월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총 네 종류로, 각각 가입대상과 대상주택이 차별화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고 활용하기에 복잡하였다. 하지만 「주택법」개정으로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앞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모든 주택청약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기능중복 등으로 인해 복잡했던 청약통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존의 청약저축·청약부

금·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종전의 규정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 '주택법' 개정 (국토부, 2015. 9월)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지금까지는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재건축 연한은 20년에서 40년까지 차이가 있었다.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준공 후 20년 이상에서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지므로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2015. 5월)

문의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 (605-5861~3)

구청장-현장 공무원 점심 소통

부산시민공원에서 '도시락의 날'

부산진구는 10월 5일과 15일 구청장과 일선 현장에서 밥을 흘리며 근무하는 공무원들간 '점심 소통'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부산시민공원에서 도시락으로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소통하는 행사다. 점심 도시락은 부산진구의 사회적이

가이 만든 도시락을 이용했다. 10월 5일에는 부산진구 관내 거리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 100여명을 초청해 '구청장과 함께 하는 도시락의 날'을 운영했다.

하계열 구청장과 현장 직원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격의 없이 진솔하게 대화했다.



부산생활체육축전 참가

부산진구 생활체육회(회장 성일경)는 10월 3~4일까지 양일간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및 종목별경기장에서 개최된 제26회 부산생활체육축전에 참가했다.

부산진구 생활체육회는 이번 축전에 14개 종목 선수단 및 임원 200여명을 출전시켰다.

부산진구 생활체육회는 이번 축전 종목 가운데 화합을 겨루는 단

한 직원은 "평소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구청장님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가깝게 느껴졌다"며 "부산진구에서 근무한다는 자긍심도 느꼈다"고 말했다.

10월 15일에는 구청장과 도로를 보수하는 도로종사원,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광고물관리종사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원 등 50여명이 함께 모여 점심식사를 했다.

현장 직원들은 "구청에서 현장 근무자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며 "점심 소통 행사를 통해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지원계 (605-4116)

제출날기에서 1위를 수상했다. 축구팀과 게이트볼팀은 준우승을, 배구팀은 3위를 차지했다.

부산진구는 각 종목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화합상 3위라는 영광을 얻었다. 이승엽 부산진구생활체육회 지도자가 부산광역시장 표창을 받았다. 이응석 부산진구생활체육회 부회장이 부산광역시 생활체육회장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문의 : 문화관광체육과 생활체육계 (605-4091), 부산진구 생활체육회 (605-4399)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안내

○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이란 무엇인가요?

-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BNK부산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을 통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모집된 기부금은 청년구직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가칭)청년희망재단 지원에 사용됩니다.

○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은 무엇이 좋은가요?

1.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동참
 - BNK부산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기부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2. 세제혜택 가능
 - 가입자는 납부한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 주요내용

- 가입대상 : 제한 없음(개인 및 법인)
- 가입금액 : 금액 제한 없음
- 중도해지(인출) : 불가능
- 수혜처 : (가칭)청년희망재단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창구 직원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1588-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암요양보호사교육원 ☎868-3411

도사정동1호선 시청역1번 출구(부산시청 옆)

* 시험일보다 원서접수일이 2달 빠르므로 미리 교육신청하세요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시간	비고
	신규자114기 (주간 총합)	11.02~11.27	월~금 09:00~17:20	▶여성가정/재직자/실업자 내 일별출카드 소지자 국비지원 교육 가능

>보건복지부 선정 우수교육원(회고 등급)
>부산시 최초의 요양보호사교육원 (부산시 인가제1호)
>70세 이상 초등학교 졸업자라도 한 번 만에 합격 도움 드림~
>한 번만 통과하면 시험 합격 때까지 추가비용 없이 공부 계속 지원
>(사)정암100세누리취업센터 운영으로 무료 취업지원서비스 혜택

방문요양 및 치매특별등급(5등급) 중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분 연락바람

2010년, 2012년,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평가 3년 연속 방문요양 / 방문목욕 2개부문 전국최우수기관 선정

정암재가노인복지센터 ☎868-3511

성인반 입학 안내

주간반	▶어머니 주부조리반
야간반	▶어머니 주부조리반, 일반인반, 직장인반
“고등학교 학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이나 청소년!”	
▶2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무시험으로 전원 대학 진학!!	
▶각종 조리사 자격증 취득!! (현식, 양식, 중식, 일식, 제과제빵, 바리스타 자격증)	
▶모집대상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청소년	
-만 16세 이상 누구나 가능합니다	
▶직장인을 위한 반 개설	
-출퇴근 시간 지장 없습니다	
-직업상 어려움이 있는 분은 상담!	
▶기초생활수급자는 학비 무료입니다	

부 산 경 호 고 등 학 교

문의 : 051-523-0209, 010-3915-5633

2015

Census

인구주택총조사

POPULATION HOUSING CENSUS

2015 인구주택총조사를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조사,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조사원 방문조사로 실시합니다.

□ 인구주택총조사는 1925년 실시 이후 매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 및 주택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국가의 각종 정책입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국가기본 통계조사입니다

* 조사원 방문시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연혁

• 인구총조사는 1925년, 주택총조사는 1960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

- 2015년 인구총조사는 제19차, 주택총조사는 제11차에 해당

□ 법적근거

• 총조사 실시 (통계법 제5조3), 지정통계 (동법 제17조 제1항)

- 인구총조사 : 지정통계 제10101호, 주택총조사 : 지정통계 제10102호

□ 조사기준 시점 및 대상 : 2015. 11. 1. 0시 현재

•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주

□ 조사항목 : 전수 12개, 표본 52개 (현장조사 49, 행정자료 대체 3)

□ 현장조사 실시기간

- 준비조사 : 2015. 10. 22. ~ 10. 23. (2일간)
- 본 조사(방문 면접조사) : 2015. 11. 1. ~ 11. 15. (15일간)
- 인터넷조사 : 2015. 10. 24. ~ 10. 31. (8일간)
- * 인터넷조사 참여응답자 추첨 : 은누리상품권 5만원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 안내

□ 기초연금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란?

- 거주불명등록 등 개인사정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
- 거주불명등록으로 기초연금이 일시적으로 지급정지되신 분
-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상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

□ 신청대상 :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

□ 신청기간 : 연중

□ 상담시간 : 오전 9시~오후6시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051-797-7021) 또는 콜센터 (1355)

기초연금 신청 안내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청한 어르신들의 재산(금융재산, 토지·건물·주택, 부채)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으며, 2015.10월 재산의 소득환산을 변동이 있어 신청안내 드립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 제도 변경 내용

- 재산의 소득환산율 변경 4% (종전 5%)
- 변경시기 : 2015. 10. 1(목)
- 근거조항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신청대상 : 재산(금융재산, 토지·건물·주택, 부채)이 있는 어르신

□ 문의 : 동주민센터 또는 노인장애인복지과 (051-605-4324)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례안’ 등 심사

제25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5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가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임시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결정, 구정질문과 구정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열렸다.

강외회 의장은 10월 14일 오전 11시 본회의 개회사에서 “지난 명절과 연휴에도 쉬 없이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국내연수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던 동료의원 여러분이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명절 비상근무와 헌신사업 추진으로 노고가 많았던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를 전한다”고 말했다.

강의장은 이어 “제상에는 많은 사람들

이 살고 있고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르겠지만,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독불장군은 없듯이 내가 하는 일이 남보다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오로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만큼, 보다 겸손하게 각자의 역할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장은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 직원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하기를 바라며, 동료의원님들 또한 구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와 구민 복리증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활동해주시고 일상생활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언행으로 존경받는 의원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강의장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56회 임시회는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며 특히, 구정질문은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의원이 구민을

대표하여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집행부와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만큼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한 정책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되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잊지 말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는 4일간의 본회의와 3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전개된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협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21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처리했다.

제256회 임시회 의안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4.5.28. 일차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구의 책무 신설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규정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강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에 대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서관 운영 목적 및 기능 ▲도서관의 이용 등에 관한 규정 ▲도서관의 관리 및 대출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광진흥 조례안=부산진구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목적, 용어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관광지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

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고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등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따른 안전거리, 도폭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유사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 확보 및 구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 확보 및 구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

위원장은 구정장이 지명한다는 규정을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개정 ▲위원회의 기능 중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 규정 삭제 등 분쟁 조정 대상 확대 ▲50명 이상의 연서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경미한 분쟁의 경우 분쟁의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납세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규정 중 상위법의 규정과 기간 등 불일치하는 일부 조문을 납세자의 권의 보호를 위해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징수유예등의 경우 납세담보 요구 예외사항중 불일치 조항 개선을 위한 조문 정비 ▲「국세징수법」과 공고기간 일치를 위한 조문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필요시 개최하는 비상설화로 정비하고,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해 관련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함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해 관련조항 수정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비상설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2015년도 하반기 의원·직원 국내연수

부산진구의회(의장 강외회)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시에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주관으로 의원과 직원이 참여하는 2015년도 하반기 국내연수를 실시했다.

첫 날에는 의정 역량 강화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위한 준비사항, 주요 감사 사례, 감사기법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다음날에는 선진시설 견학 및 문화답사를 실시했다. 마지막 날에는 예산안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관한 특강을 들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의원들은 부산진구를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에 나갈 수 있는 방향 모색에 적극 노력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장실태 조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문영미)는 9월 15일 새벽 생활폐기물의 원가산정과 관련해 현장을 찾아가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활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에 대한 원가가 올바르게 편성되는가를 심사하기 위해 대행업체 직원들과 함께 부산진구 관내 골목을 찾아다니며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 찾아가는 의정활동,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의정 포토 뉴스



부산진구민 작품공모전 관람

강외회 의장, 석광준 부의장은 9월 16일 제23회 부산진구민 작품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에 참석했다.



추석맞이 신제품소개회 방문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문영미)는 9월 2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신제품 소개회를 방문하여 상품을 전달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제40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

부산진구의회(의장 강외회)는 9월 22일 제40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에 참석했다.



명절제수용품 나누기

강외회 의장, 류종추 의원은 9월 23일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추석맞이 명절제수용품 나누기 행사에 동참했다.



추석맞이 현업부서 격려

부산진구의회(의장 강외회)는 9월 2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청원경찰, 청사 미화원, 운전원 등 현업 부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격려했다.



추석맞이 매실보육원 방문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배영숙)는 9월 21일 추석 명절을 맞아 매실보육원을 방문하여 상품을 전달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성인문해교실 문학작품 공모전

부산진구의회(의장 강외회)는 9월 22일 부산진구 성인문해교실 문학작품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했다.



평생학습·주민자치회 박람회 폐막식

부산진구의회(의장 강외회)는 10월 8일 평생학습·주민자치회 박람회 폐막식에 참석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18세 이상 성인들을 위한

2년과정 성인학생모집

☑ 교육부 인정 졸업장 수여
☑ 2년만에 졸업
☑ 18세 이상 남·여 누구나 입학가능
☑ 중학교 수업료 면제
☑ 수능시험 관계없이 대입진학

입학상담 521-7771~6

부산골프고등학교 병설 성인 중·고등학교

“아” 조기발견하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중진의원 종합검진센터는 3,000여 명의 신장검진센터를 통해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다 나은 맞춤형 건강검진과 건강중진서비스를 위해 64ch PET-CT, MRI 등 첨단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4층 수련의(석좌진정) 위·대장클리닉, 6층 건강의학과클리닉, 7층 임의학과클리닉으로 새롭게 확장하여 부산시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정화하겠습니다.

다함께 건강한 행복도시 부산의 건강지킴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중진의원 종합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유치환자 치방실시

인공관절수술(무릎, 어깨, 발목)
관절내시경수술
물리치료실(도수치료)
위·대장내시경 클리닉

MediCheck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중진의원 부산부설 건강검진센터
부산시 동래구 동명동 1430-2번지 1430-2 TEL 553-0401 http://busan.hospital.kr

www.hu-hospital.co.kr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의가 진료 및 진단, 수술을 시행합니다

인공관절수술(무릎, 어깨, 발목)
관절내시경수술
물리치료실(도수치료)
위·대장내시경 클리닉

KaKao Talk
유명원이랑 카톡친구 맺자!
바로바로 실시간 상담!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유명원 카카오톡 ID : huhospital

휴병원 정형외과, 내과, 종합검진센터
문의 051) 803.9000 (부암역 8번 출구 앞)

부산작명연구소

◆ 대통령 상, 독일 IENA 상, 부산시장 상을 받은 학자가 철학 공부를 많이 하여 작명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 작명 개명 전문, 아기 이름 전문, 아호 상호 전문 이름 감정 무료, 개명 상담 무료, 셋째 작명 무료

YTN 방송사 대상 받음
1. 부산사범대학, 경영대학원
2. 신지식인, 동양 철학지도사
3. 발명 특허권 88개 취득
4. 에디슨학구, 아들로 대표
5. (합)한영 물산 한국 대표
6. 한국 아이디어 뱅크 관광
7. 부산일보 1년 6개월 글승
8. 부산을달린다 1년 생방송

동래역 1번 출구앞 556-8833/010-3045-3883

지붕 개량(리모델링)슬라브옥상에
확실한 방수!! 단열효과!!

최고의 장점 지긋지긋했던 누수 끝!
귀찮은 페인트칠 끝! 파손 걱정 끝!
간편한 시공, 대부분 하루만에 끝!

칼라강판은 어떤 형태의 지붕도 아름답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수평 방형구적! 칼라강판은 다양한 색상과 모양, 단열효과까지 갖 춘 경량지붕재! 고온열처리(특수코팅)로 차후도색이 필요없습니다.

적용 예 슬라브 옥상, 기와 지붕, 상공 지붕, 슬레이트 지붕, 조립식 지붕, 사찰·교회·공장 지붕

포항갈리 강판 문의 : 626-0043/010-5524-0043

전포1동 ‘22년 전통’ 성대한 경로잔치

어르신 1,000여 명 참석
노래와 흥겨운 춤 한마당
새마을금고 등 업체 후원
각급 단체는 봉사활동 앞장

전포1동은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성대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전포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병기)는 10월 8일 부산진여중 체육관에서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과 각급 기관장, 단체장 등 1,100여명을 초청해 2015년 ‘사랑의 효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사랑의 효 경로잔치는 올해로 22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전포1동의 전통적인 경로잔치다. 전포1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전포1·3동 새마을금고(이사장 신영경, 이음식)를 비롯해 각 자생단체, 개인 독지가, 업체가 행사경비를 후원했다. 각급 단체원들은 음식준비 등 자원봉사에 앞장섰다.

이날 식전행사로 주민자치회 기체조 동아리의 국악공연이 펼쳐졌고 참가한 어르



신들에게 도시락과 수육, 떡 등 푸짐한 음식이 제공됐다.

또 32인치 LED TV, 전자렌지, 경음고세트, 초음파 촬영권 등 50여개의 경품도 추첨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제공됐다. 참석 어르신 모두에게는 기념수건과 사망벨리가 제공돼 전포1동의 훈훈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됐다.

어르신들은 신명나는 난타공연, 초청가

수 공연을 관람하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병기 주민자치위원장은 “전포1·3동 새마을금고와 관내 주요기관 및 자생단체원의 후원으로 경로잔치를 잘 치를 수 있었다”며 “이날 행사에서 묵묵히 어르신들을 정성스럽게 모신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의 : 전포1동주민센터 (605-6641)

(주)오토피엠테크 1,000만원 학습 지원금

(주)오토피엠테크(대표 황철성)는 9월 21일 서면라이온스클럽에서 ‘2015년 3분기 학습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해 관내 모범학생 2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1,000만원의 학습지원금을 전달했다.

황철성 대표는 2013년부터 관내 모범

학생들에게 꾸준히 학습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황 대표는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루고 싶은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 희망복지와 서비스연계계 (605-4352)



(주)용관 신발 1,000켤레 성품 기탁

(주)용관(대표 김세형)은 9월 22일 부산진구청을 방문, 관내 저소득계층에게 전달해달라며 신발 1,000켤레를 기탁했다. (주)용관은 신발제조업체이며 지난 2011년부터 직접 생산하고 있는 신발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오고 있다.

이번에 기탁한 신발은 한가액 1,300만원 상당이다.

부산진구는 각 주민센터를 통해 선정된 취약계층에게 신발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의 : 희망복지와 서비스연계계 (605-4352)

“부전1동주민센터 특강은 재미있다”

테라리움 화분 만들기
유럽식 손뜨개 배우기
석고방향제 만들기 등
수업 참여자 반응 좋아

부전1동주민센터가 특이하고 재미있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일특강을 운영해 관심을 끌고 있다. 부전1동주민센터는 10월 2일 ‘미니정원, 테라리움 화분 만들기’ 일일특강을 개최했다. 테라리움은 라틴어로 땅을 뜻하는 ‘테로(terro)’와 방이라는 의미의 ‘아리움(arium)’이 합쳐진 말이다. 부평한 용기 안에 식물을 옮겨 심어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실내장식을 겸한 원예이다. 특강은 원예 기본상식,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는 방법, 나만의 예쁜 테라리움 만들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좌에 참여한 윤귀란씨는 “직접 배워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면서 “신물하기도 좋은 것 같고, 집에 가져가 TV 옆에 두어도 예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4일에는 ‘나만의 석고방향제 만들기’ 일일특강을 개최했다. ‘석고방향제’는 석고와 액상 향료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예쁜 무늬가 새겨진 몰드로 굳혀 만드는 고체 방향제를 말한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가 있으며 발향기간이 2~3개월 정도 유지된다. 향이 남아간 후에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방향제이다.

지난 6월 25일부터 주민자치회 으름사 업으로 계속 운영중인 ‘테라레이스 전문가 양성반’ 특강도 눈길을 끌고 있다. 테라레이스는 프랑스 등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유럽식 손뜨개다. ‘셔틀’이라고 하는 작은 배 모양의 기구에 실을 잡아 누구나 손쉽게 소품과 액세서



리를 만들 수 있다. 부전1동은 11월에도 테라리움 화분과 수경재배 화분, 석고방향제 만들기 등의 특강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강에 참가한 주민들은 “특별하고 재미있고 실생활에 유용한 특강이 자주 운영돼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홍연자 부전1동장은 “주민들에게 배우는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실생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부전1동주민센터 (605-6502)



(주)고래사 대표 성품 지원

(주)고래사 김형광 대표는 개금3동 경로효도잔치를 위해 어복선물 20세트 1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김대표가 기탁한 선물세트는 10월 4일 효도 경로잔치에서 사용됐다. 문의 : 개금3동주민센터 (605-6937)

포럼아스 장학금 및 후원금 전달

비영리봉사단체인 포럼아스(회장 석제민)는 9월 22일 개금3동주민센터에서 한 부모가정 1세대에 장학금 100만원, 형편이 어려운 10세대에 후원금 500만원 등 총 6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포럼아스는 밀양출신 사업가 (주)신승오앤에프 석제민 대표이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비정기적 순수 봉사단체이며 2011년 12월 22일 창립됐다. 문의 : 개금3동주민센터 (605-6937)



(주)부산비즈니스호텔 추석 성금 100만원 기탁

(주)부산비즈니스호텔(대표 윤경숙)은 추석을 맞아 지역 소외계층에 지원해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부전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신재한)에 전달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성금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확여행을 가지 못하는 저소득 초등학교 10명에게 지원했다. 문의 : 부전2동주민센터 (605-6535)

새마을단체 경로당에 성품

새마을지도자 부전1동협의회(회장 김창곤)와 부전1동 새마을부녀회(회장 변갑수)는 9월 22일 관내 경로당 9곳을 방문해 과일과 떡 등 성품을 전달했다. 문의 : 부전1동주민센터 (605-6517)

(주)HUD홍유단 성품 기탁

부전2동에 있는 중식당 (주)HUD홍유단(본부장 김민재)은 추석을 앞두고 9월 21일 지역의 소외계층에 전달해달라며 부전2동주민센터에 라면 50박스 15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부전2동은 관내 소외계층 50세대에 라면 1박스씩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의 : 부전2동주민센터 (605-6535)

(주)대현프리몰 쌀 500kg 기탁

지하도상가개발 전문회사 (주)대현프리몰 부산지사(지사장 안형길)는 9월 22일 부전2동주민센터를 방문, 이웃돕기에 써달라며 백미 500kg(한가 120만원)을 전달했다.

부전2동주민센터는 50세대에 백미 10kg 1포씩을 전달했다. 문의 : 부전2동주민센터 (605-6535)

롯데호텔 샤�롯데봉사회 당감2동에 사랑의 성품

부산롯데호텔 샤�롯데봉사회(회장 김부현)는 9월 25일 당감2동주민센터를 방문해 6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30개를 기탁하였다.

샤�롯데봉사회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당감2동은 성품을 기초수급자, 저소득 독거노인 등 30세대에 전달했다. 문의 : 당감2동주민센터 (605-6774)

연지동 사랑의 쌀 ‘훈훈’

연지동은 9월 22일 연지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권후우), 동민회, 연지교회, 서면라이온스 등 15개 단체 및 기관, 개인이 기탁한 쌀 10kg 238포 600만원 상당을 모아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개최,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었다. 문의 : 연지동주민센터 (605-6567)

초록봉사단 사랑의 연탄 나눔

초록봉사단(단장 이재형)은 10월 17일 연지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세 대 등 12세대에 겨울철을 대비해 연탄 2400장과 쌀 120kg를 제공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자원봉사가 80여명과 나성린 국회의원회장이 참가해 직접 연탄을 배달했다. 문의 : 연지동주민센터 (605-6575)

불광사 산돌회 장학금 전달

초음동 소재 사찰 불광사의 불광산돌회(회장 정영도)는 10월 19일 한부모가정 중·고등학교 10명에게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불광산돌회는 장학금 마련을 위해 10월 14일 일일호프를 개최했으며, 행사 후 수익금 전액을 이날 초음동주민센터에 청소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문의 : 초음동주민센터 (605-6595)

양정1동 넉넉한 한가위

양정1동 주민자치회(위원장 이기철)는 9월 22일 대대적인 추석성품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양정1동은 따뜻하고 넉넉한 한가위를 맞이하기 양정1동 소재 기업, 유관단체, 종교단체 등 50여 곳에서 기탁한 1315만여원의 성품을 저소득계층, 경로당, 복지시설 등 총 514곳에 백미 10kg 381포, 라면 339박스를 전달했다. 문의 : 양정1동주민센터 (605-6616)



부암1동 쌀 성품 잇따라

바르게살기 부암1동위원회(위원장 황덕계)는 9월 23일 10kg들이 쌀 40포를 이웃돕기 성품으로 부암1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부암서면라이온스클럽(회장 이광호)도 이날 쌀 10kg 30포를 성품으로 기탁했다. 이 쌀은 이광호 신임회장이 취임하면서 축하회환 대신 기증받은 쌀이다. 부암1동주민센터는 지역내 홀몸 어르신, 다문화가정, 장애인세대 등에 쌀을 전달했다. 문의 : 부암1동주민센터 (605-6715)

초음동 상가변영회 쌀 성품

초음동 상가변영회(회장 이우석)는 9월 23일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가정에 전달해달라며 백미 10kg 94포(한가액 235만원상당)를 초음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문의 : 초음동주민센터 (605-6581)

추석 이웃돕기 성품 전달

서면라이온스클럽(회장 이광호)은 9월 23일 연지동주민센터에서 이웃돕기 성품 전달식을 갖고 쌀 10kg들이 30포를 관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30세대에 전달했다. 문의 : 연지동주민센터 (605-6575)



당감2동 제일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우수

당감2동 제일경로당(회장 이경두)이 2015년 경로당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경로당 활성화와 프로그램 공유 및 우수 경로당 프로그램 발굴 등을 위해 (사)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주최로 9월 18일 개최됐다.

부산광역시 각 구·군 대표로 선발된 경로당 16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제일경로당은 텃밭 가꾸기, 미술심리치료, 한자공예, 할미꽃 부산단 결성 등 활동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문의 : 당감2동주민센터 (605-6763)

일일호프 행사로 닭강정 대접

개금2동 청년회(회장 이준혁)는 10월 2일 저소득 노인세대 반찬지원을 위한 일일호프대회를 개최했다. 청년회는 이날 수익금으로 닭강정을 마련해 10월 14일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경로잔치에 200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식사로 제공했다. 문의 : 개금2동주민센터 (605-6907)

개금3동 효도 경로잔치

개금3동 유관단체장협의회(회장 김삼석)는 10월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포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효도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협의회 등 10개 유관단체는 이날 어르신 300여명을 초청해 점심식사와 다과 등을 대접했다. 문의 : 개금3동주민센터 (605-6921)

헬러윈축제 ‘다울산장’에 오세요

귀신포토존·타로점·체험부스 운영… 복권서트 공연

10월 31일 전포복지관에서

전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양성필)은 10월 31일 오후 5시부터 자정에 이어 할러윈(귀신)을 주제로 한 제2회 다울마을 가을마실&복권서트인 ‘다울산장’을 개최한다.

다울산장 행사에는 카드지갑 만들기, 찻사반지 만들기 같은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또 타로점과 귀신포토존 등의 다양한 놀이부스가 운영되고 천연제품과 먹거리도 판매하는 코너가 운영된다. 재미있는 공연으로 구성된 북 콘서트 공연도 펼쳐진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은 봄과 가을 연 2회 ‘마실’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주민



당감1동 쌀·송편 등 전달

○…당감1동 청년회(회장 정대희)는 9월 20일 관내 저소득 어르신 25세대에 쌀 10kg씩 전달했다.

○…당감제일교회는 9월 22일 백미 20kg들이 20포(100만원 상당)를 당감1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주민센터는 쌀을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주민 20세대에 전달했다. 당감제일교회는 매년 명절 100만원 상당의 쌀을 후원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당감1동주민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9개 단체와 함께 9월 24일 관내 경로당 18곳을 방문해 송편을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문의 : 당감1동주민센터 (605-6798)

당감4동 훈훈한 추석성품

당감4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지원)는 9월 21일 당감4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쌀 10kg 10포를 전달했다. 이어 바르게살기운동 당감4동위원회, 소정돼지갈비, 독지가, 총총회, 한중유통, 조영수, 강신하 등 많은 단체와 업체, 개인들이 백미 10kg들이 132포 337만원 상당을 기탁해 훈훈한 추석 분위기를 만들었다. 문의 : 당감4동주민센터 (605-6813)



당감4동 한마음 체육대회

당감4동 유관단체장협의회(회장 이지원)가 주최하고, 당감4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2015년 당감4동 유관단체 한마음 체육대회’가 10월 4일 동평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체육대회에는 유관단체원, 주민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 유관단체원과 주민들은 지구를 굴러라, 협력 공작기, 단체 줄다리기, 무지개 구름다리기, 단체 줄다리기, 노래자랑 등에 참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문의 : 당감4동주민센터 (605-6803)

승용차요일제 홍보 캠페인

범전1동주민센터는 9월 24일 통장, 유관단체원,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승용차요일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참여자들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1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할인가맹점 이용요금 5~10% 할인 등의 혜택을 안내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문의 : 범전1동주민센터 (605-6941)

범전4동 나눔의 정 넘쳐

범전동새마을금고(이사장 김재택)는 추석을 맞아 백미 10kg 70포(한가액 15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

관내 사찰인 상원사(주지 홍관스님)도 백미 10kg 30포(한가액 75만원 상당)를 전달해왔다. 부산광역시라이온스클럽(회장 유병희)은 갓 도정한 햅쌀 10kg 110포 250만원 상당을 9월 22일 범전4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문의 : 범전4동주민센터 (605-6994)



축제를 열어오고 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내의 지역주민연합체인 다울마을이다.

‘누구나 다 온다’는 의미의 다울마을은 2014년에 출범했으며 각각의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형성된 소규모 연합체다. 문의 : 전포종합사회복지관 (802-6383)

부산진구 관광명소를 ‘한눈에’

접이식 관광안내지도 1만부 제작 배부

부산진구는 관내를 찾는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접이식 관광안내지도를 1만부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이 관광지도에는 문화유적, 도시공원, 음식점거리, 쇼핑장소, 공연장, 특화거리 등 다양한 관광정보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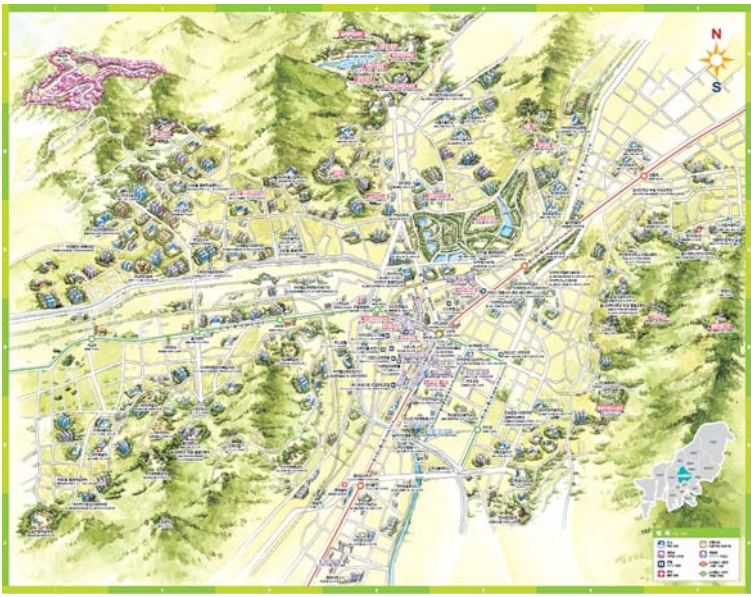
1만부 가운데 국어와 영어가 함께 표기돼 있는 지도가 4,000부이며 국어·중국어·일어가 함께 표기된 지도가 6,000부다. 펼쳤을 때의 규격은 가로 76cm, 세로 52cm이다.

지도를 보면 앞면은 어린이대공원과 대파크, 부산시민공원, 화지공원, 삼광사, 선암사, 국립부산국악원,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구상반려암, 황령산봉수대 등 관광명소가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눈

의 띄게 표시되어 있다.

서면메디컬스트리트와 젊음의 거리, 서면1번가, 전포동 카페거리, 부전역앞 골짜기거리, 서면문화로 등 특화거리가 남색바탕에 흰 글씨로 표기되어 있다. 지도는 길을 찾기 쉽게 대로와 주요도로가 실제 방향대로 단순하게 그려져 있고 도시철도 노선도도 수록되어 있다.

각 복지관과 학교, 관공서, 호텔, 아파트, 도시철도역 등 주요시설도 잘 그려져 있어서 찾기가 쉽다. 뒷면에는 문화유적 및 명소에 대한 사진과 설명이 수록되어 있고 대표적인 먹거리와 쇼핑시설, 관광코스 등도 포함되어 있어 부산진구 내의 관광지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부산진구는 관광안내지도를 메디컬스트리트 관광안내소, 각 호텔, 지자체, 공항 등에 비치해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축제 등 각종 행사시에도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다. 지도가 필요한 시민은 부산진구청 문화관광체육과를 방문해 받아 가면 된다.

문의 : 문화관광체육과 관광진흥계 (605-4521~3)

학생·시민들 문화예술교육 체험 기회

11월 7~8일 부산시민공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진행

음악·미술·각종 공예 체험

레인보우뮤지컬 등 공연도

11월 7일과 8일 이틀동안 부산시민공원에서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익한 문화예술교육 체험축제가 열린다. 재단법인 부산문

화재단은 이 기간동안 ‘여기가 꿈다락’이라는 이름으로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개최한다. 이 축제에는 아동·청소년과 가족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면서 함께 놀고 체험하고 소통하는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행사다.

(재)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부산의 33개 운영기관을 선정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여기가 꿈다락’에는 33개의 운영단체 및 부산지역 내 35개의

문화예술교육 단체들이 참가해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체험 학습 할 유의 자리를 만들어준다. 모든 문화예술교육 체험은 무료로 진행되며 문화예술교육 체험시 기념품도 증정한다.

행사는 축제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펼쳐진다.

다솜광장에는 문화예술교육 전시부스가 운영된다. 여기에서는 한지 발도장, 큰 그림책 등 수업결과물, 수업사진 등이 전시되고 낱관 아트

거치대 만들기, 우쿠렐레 배우기, 강통기타 만들기, 드로잉 팬이 제작, 오파색 팔찌 만들기, 향기나는 캐리커 만들기, 솟대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중간중간 주어진 미션을 완수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미술난장과 국악그룹 도시락, 내뽀를 펼쳐라 등의 공연도 펼쳐진다. 이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의 부산독립만세, 독도에서 놀자, 홀로서기, 매죽지마를 할머니 이야기, 레인보우 뮤지컬 등의 공연이 펼쳐져 재미를 더해준다.

문의 : (재)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745-7285)

교통사고 형사합의하면 보험금 못 받나요?

법률상담

Q. 저의 아버지는 몇 달 전 야간에 도로를 횡단하다 차량에 치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는 쓰러진 아버지를 구호조차 하지 않고 도망쳐버렸는데, 이틀날 탐문하던 경찰에 체포되어 사고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 가해자는 아버지에게 형사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고민입니다.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 제75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처럼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형량이 가벼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무런 단서도 달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게 됩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나중에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할 경우 그 합의금 상당의 금액이 공제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형사합의금이라면 형사합의서에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라거나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또는 “보험금과는 별도”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게 되면 가해자는 위 합의금 상당의 금액을 자기의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가해자가 합의금 상당의 금액을 자기의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형사합의금 상당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작성할 때 이러한 가해자의 보험금지급 청구권까지 채권양도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소통 이미현 변호사>

부산진구 중·장년 채용박람회 안내

○일시 : 11.19.(목) 14:00~16:00
○장소 : 부산진구청 다복실(15층)
○참가대상 : 구직을 희망하는 누구나
○참가방법 : 현장 면접
○구비서류 : 이력서(사진1매 부착) 자기소개서 지참
○행사구성
· 구인·구직자간 현장면접 및 채용

· 취업 지원 및 교육제도, 직업훈련 정보 제공
· 이력서 사진 촬영,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컨설팅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후원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고용센터
○문의 : 일자리사업과(605-4344) 취업정보센터(605-4348, 6408)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안내

○대 상 : 참여희망자 누구나
○시 간 : 매주 월~금(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장 소 : 부산진구청 별관 건강증진센터 3층 건강채플란
○비 용 : 무료 ○문의 및 예약 : ☎605-5990/5956

건강상담 운영내용

구분	내 용
만성질환관리실 (605-5990/5956)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및 상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상설교육 안내 ·자동혈압계 및 혈당측정기 무료 대여(1인당 2주~1회 연장가능) ·건강정보 및 자가관리수첩 제공
금연클리닉 (605-5954)	1주차 (등록) 니코틴의존도 검사 및 금연결심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 1인당 금연상담 4주 성공기념품 제공 · 6주 이후부터 전화, SMS를 통해 6개월까지 금연 여부 추후관리 · 6개월 금연성공자 6개월 성공기념품 제공
운동처방실 (605-5957~8)	·운동습관 평가 및 상담 ·체성분 측정(발문 시 측정가능) ·신장, 몸무게, BMI, 체지방률, 근육량, 복부비만율, 기초대사량 등 ·체력 측정(※ 사선예약 필수) -약력, 폐활량, 평형성, 민첩성, 순발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등 운동정보 및 교육자료 제공
영양사업실 (605-5951~3)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 -임신,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 대상(※ 사전 전화문의-신청기간 확인필수) -기초수급자, 차상위수급자는 상시 대기자 접수가능(※ 전화문의 요망) ·질환별 영양상담 및 영양정보 제공 ·염도계 대여(1인당 2주~1회 연장가능)

혈압·혈당 관리! ‘심뇌혈관질환’ 상설교육 안내

부산진구보건소 심뇌혈관질환자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강화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상설교육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 간 : 2015. 2. 3.(화)~2015. 12. 29.(화), 매주 화요일 14:00~16:00
○장 소 : 부산진구보건소 3층 보건교육장
○대 상 :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자 및 가족(신청자만 참석 가능)
○교육내용(교육 전 혈압·혈당 측정)

부산진구 ‘아트 프리마켓’ 운영

10월 31일 서면문화로에서 예술작품 전시·판매

서면문화로에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수공예품과 예술작품을 전시·판매하는 행사가 개최된다. 부산진구는 10월 31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면문화로 일원(강약곡~할매회국수집, 서면지하철역 9번출구)에서 ‘아트 프리마켓’을 운영한다.

아트 프리마켓에는 전문 예술작가가 만든 회화, 드로잉, 사진 등 예술작품이 전시 판매된다. 잘만 고르면 높은 가치를 지니는 작품을 싼값에 구입해 소장할 수 있다. 예술작품과는 별도로 40여 개 팀이 부스를 설치해 수공예품과 액세서리 등 핸드메이드 제품도 전시·판매한다. 부산진구는 행사 참여 확대를 위해 10월 27일까지 수공예

품, 액세서리 등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할 참여자를 모집한다. 부대행사로 행사 당일 오후 4시부터 5시30분까지는 영광도서관 분수대 앞에서 ‘10월의 마지막 밤 작은음악회’ 행사와 연계한 거리공연도 펼쳐진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아트 프리마켓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예술인과 시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문화예술에 대한 안목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진구는 이번 행사 결과에 따라 아트 프리마켓 상설 운영 등을 통해 서면문화로를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문의 : 문화관광체육과 관광진흥계(605-4522)

(주)에드인터스 이규복 대표 장학금 500만원

(주)에드인터스 이규복 대표이사는 부산진구장학회(이사장 도중이) 사무국을 방문,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규복 대표이사는 “부산진구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을 위해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부산진구장학회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

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진구장학회는 1996년 6월에 설립돼 2015년 10월 현재 장학기금 약 62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1,586명에게 약 28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문의 : 부산진구장학회(605-6469)

의료급여 수급자 종합병원 이용시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3% 적용

2015년 11월 1일부터 의료급여 수급자가 고혈압 등 가벼운 질환(52개 질환)으로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이 기존 정액제(500원)에서 정률제(3%)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이 증증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형 병·의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값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대형병원이 아닌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시에는 약값이 기존의 본인부담(500원)과 동일하므로 가벼운 질환의 경우 대형병원을 찾지 말고 인근 의원이나 중소형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문의 : 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계(605-5846)

가야고가교 하부도로 교통통제

11월 11일까지 새벽 1~6시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가야고가교 배수시설 정비공사에 따라 10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가야고가교 하부도로를 대상으로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교통통제가 실시되는 시간은 이 기간 매일 새벽 1시부터 6시까지다. 부산시는 가야고가교의 안전성 확보, 수명 연장, 기능유지 등을 위

해 320미터 구간의 노후 배수시설을 교체하는 공사를 벌이고 있다. 공사시간에는 가야고가교 배수시설 교체를 위해 공사 차량이 진입해 있어 왕복 3차로 가운데 1~2차로는 완전히 통제되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천 및 기타 사정으로 일부 공사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 문의 : 부산진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605-4551), 건설안전시험사업소(550-7257), 시공사 (주)본구조엔지니어링(505-7737)

공유장터 ‘나눔터’ 개장

10월 30일 어린이대공원

부산진구는 10월 30일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입구에서 공유장터인 ‘나눔터’를 개장에 운영한다.

공유장터는 가정 내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기증받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재사용함으로써 감량과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장에 오면 의류, 가방, 신발, 도서, 장난감, 유아용품 등을 구입 또는 교환할 수 있다. 우천시 행사는 취소된다.

부산진구는 행사에서 얻은 수익금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문의 : 청소행정과 재활용계(605-4455)

중고 스마트폰 수집

기증자에 문화상품권

부산진구는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중고 스마트폰을 기증받아 스마트폰 구입이 어려운 이웃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랑의 스마트폰’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폰 수집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기증 희망자는 구청 혹은 인근 동주민센터에 기증하면 된다.

부산진구는 중고 스마트폰을 기증받아 12월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수집 대상 기기는 통신가입이 해제된 중고 스마트폰이며 전원이 불량하거나 액정이 파손된 스마트폰은 수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 스마트폰 기증자에게는 문화상품권(1만원)을 지급한다. 문의 : 기획조정실 행정정보계(605-4301)

장애인도 운전면허 취득

장애인협회 교육생 모집

부산국제장애인협회와 부산 장애인운전재활센터는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장애인 교육생을 모집한다.

장애인운전재활센터는 부산 최초로 장애인 특성에 맞는 운전재활을 위해 신체, 지각, 인지 평가부터 알맞은 운전 보조장치의 적용, 학과시험 안내 및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기능, 도로주행 교육까지 전반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대상은 장애등급 1~6급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인이며 교육기간은 매주 3회, 총7주간이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선착순 접수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부산국제장애인협회와 부산 장애인운전재활센터에 먼저 전화로 상담을 받고 이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부산국제장애인협회의회 부설 장애인운전재활센터(469-3250)

‘분노와 화를 조절하는 기술’ 교육

○ 일시 및 장소
▷2015. 11. 04.(수) 15:30~17:30, 보건소 A동 3층 보건교육장
○ 대 상 : 부산진구민 누구나
○ 주 제 : 『분노와 화를 조절하는 기술』
○ 강 사 : 메리놀병원 최성진 임상심리실장
○ 신청 및 문의 : 부산진구보건소 ☎605-5949

2015년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대기자모집 안내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부산진구 구민으로서 기준중위소득의 80%미만의 임신부, 출산수유부(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수유부만 가능), 6개월 미만의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가진 대상자

< 소득판정을 위한 2015년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80%미만)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3인	2,753,000	88,365	88,873	90,409
4인	3,378,000	109,995	117,635	111,291
5인	4,003,000	130,736	144,695	132,531

○ 접수기간 : 전화예약 후 방문접수
○ 접수방법

접수기간 중 부산진구청 별관 건강증진센터(3층, 영양상담실) 방문 ⇒ 전화예약 후 보건소 방문하여 영양평가(기, 체중, 빈혈 측정) 및 소득 판정 후 해당되는 경우 대기자로 접수 가능

※ 접수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영양평가 가능

○ 접수 시 구비서류 안내

1.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접수대상자 명의), 의료급여증
2. 차상위 대상자 : 차상위 증명서
3. 그 외 접수자 : 자동차보험증권(직장 건강보험 가입자해당 -차량가액 3천만원 미만 접수가능), 산보수첩(임신부만 제출)
○ 접수장소 : 부산진구청 별관 건강증진센터 3층 영양상담실(☎605-5952, 5953)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두손컴 복다자이너 김귀숙 실장.

그녀 인생에 가을이 오면

김다희 씨의
꽃보다 여자 20

한 직장에서 강산이 두 번 변하도록 일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녀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엄청나게 성실하다?, 무념하다?, 융통성 없다?, 그도 저도 아니면...

부산진구 서면인쇄거리 명함골목이라 불리는 거리에 '두손컴'이라는 디자인 전문회사가 있다. 대학 졸업 후 입사해 20년째 근무 중인 김귀숙 씨.

그녀의 집은 양산. 양산에서 버스를 타고 노포동시외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지하철로 환승해 서면까지, 출근 시간 만 해도 장장 한 시간 반. 그녀가 차가 밀리지 않을 때 시간이다. 비교도 바랍 불고 하물며 눈 오는 날은 없었을까? 일의 특성상 야간근무가 태반이지만 한 번도 지각, 조퇴, 결근이라고는 용납이 안 되는 그녀의 직책은 디자인실 실장. 말단 직원에서 책임자까지 오는 동안 두손컴 디자인전문회사의 사장님도 한 몫을 했다.

일을 떠나 머리로 식히고 견문을 넓히라는 의미로 여러 곳을 다니며 직접 보고 느껴 복다이너로서 커리어가 쌓이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유도 있다.

1980년대 이후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대폭 향상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일하기를 꺼려하는 업종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다. 주로 노동집약적이고, 복 지후생이 낮은 중소기업 등이 많이 포함된다.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이라는 뜻의 머릿글자를 따 3D라 일컫는 것이 그것이다. 올해 4월23일자 문화일보에는 호주 유학까지 다녀온 20대 후반 여성 취업준비생이 복음관리사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녀는 과거 '때밀이'로 불렸던 복음관리사가 되기 위해 국가파부미용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였다. 출판 업계도 편한 직장을 원하는 젊은이들에

게 결코 환경이 좋은 일자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이 좋지 않은 직장에 다닌다고 하여 실패한 인생은 아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말처럼 주어진 환경에 대한 불만 표출보다는 희망의 실마리로 삼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는 것도 요즘 푹푹한 젊은이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끈기가 부족하고 힘든 것보다는 쉬운 것을, 쉬운 것보다는 때깔 나는 것을 먼저 찾다보니 특정분야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이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내가 바뀔 때 인생도 바뀐다.'라고 앤드류 매퍼스는 말한다. 직장에 있어서 주인은 직원을 잘 만나고, 직원 또한 주인을 잘 만나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 딱 그 본보기를 보여주듯 두손컴 사장님과 김귀숙 실장의 호흡은 이제 눈빛만 봐도 필(feel)이 통한다.

이십여 년을 근무하며 순탄한 평지만 있었을까. 실상 들여다보면 때로는 막다른 길에 다다르기도 하고 숨이 턱 막히는 언덕도 마주하게 되었으리라. 때로는 안개 자욱한 길을 걸으며 저 너머에 뭐가 있을지 막막했을 때도 있었을 테고 가끔은 숨 가쁘게 달음박질 치야 할 때도 솔하게 있었을 것이다.

사람은 인품대로 그 얼굴의 표정이 만들어지는 것.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저 실실 웃는 착하기만 한 그녀. 누군가 전생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기실 그녀는 전래동화 속의 공주였거나, 공양미 삼백 석에 몸을 바친 신장이지 쫓기고 일러주지 않을까. 그렇듯 '착한여자'의 대명사같이 살아가는 그녀.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 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겁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겠습니다' 하는 윤동주님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처럼 그녀 인생에 가을이 오면 아름다운 화를 살았다고 대답하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녀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빈첸시오의 물을 마시면 '가화만사성'

요즘 주변에서, 그리고 신문과 방송을 들을라치면 이런저런 이유로 부부간에 다툼, 이혼하는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벌어져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사랑하는 아내가 병으로 죽자 아내의 무덤 곁에 오두막집을 짓고, 아내가 생전에 좋아했던 꽃을 가꾸고, 아내를 그리는 시를 지으며 살다 죽은 남편이 있다면 세상의 아내들은 다들 부러워할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천재시인 에드거 앨런 포의 일이다.

그는 아내가 결핵으로 죽어가던 추운 겨울날 낚은 외투하나를 덮어주는 것밖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가난한 남편이었다. 끝내 아내가 죽자 낮에는 꽃을 심고 밤에는 술에 취해 뒤통목을 누비고 다니며 아내에게 바치는 시를 지었다. 그때 쓴 유명한 시가 바로 애너벨리라는 작품

부부싸움 전에 한모금 머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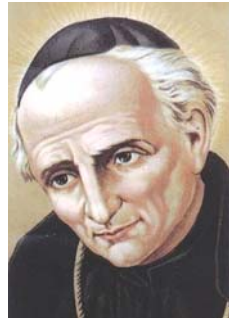
남편이나 아내가 잔소리 할 때

대꾸없고 침묵시키면 기적이...

이다.

살다 보면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부 다툼 치료에 특효인 스페인의 격언이 있다. 그 격언은 '빈첸시오의 물을 마시라'는 것이다.

남편의 잔소리에 질린 어느 부인이 수도원의 성(聖) 빈첸시오(Vincentius)를



성(聖) 빈첸시오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물을 한 모금 입에 넣으시오. 단, 절대 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답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돌아오자마자 또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당장 맞받아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얼른 수도원의 물을 입 안에 한 입 머금고 새어 나오지 않게 입을 꼭 모으고 있었다. 그랬더니 조금 뒤 남편이 조용해졌다. 그날 이후 남편이 잔소리를 시작할 때마다 부인은 수도원의 물을 입안에 머금었다. 효과는 만점이었다. 남편이 서서히 바뀌더니 부인을 칭찬하기까지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기적을 일으킨 건 수도원의 물이 아니라 부인의 침묵이었던 것이다. 남편도 마찬가지다. 잔소리하는 남편, 집안일에 무관심한 남편, 가부장적인 남편 등등 모든 부부들이 늘 빈첸시오의 물을 떠올려 보자.

평소에 남편이나 아내가 무언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꼭 한번 참아주자. 그리고 한바탕 쏘아주고 싶을 때 생수나 커피 한 잔을 빈첸시오의 물처럼 마셔보자.

우리 부산시민들 중 오늘도 부부간에 다투거나 언짢은 일이 있었다면 함께 웃으며 빈첸시오의 물을 마시고 가정에 평화를 일구어 보시길 기원해 본다.

<개금동 민경호>



경주 양동마을에서 만난 동경이

우리나라 토종개 가운데 동경이라는 개가 있다(사진). 겉모습은 진돗개와 비슷하다. 눈은 동글고 눈썹이 발달했으며 눈동자는 주로 검은색이다. 귀는 앞을 향해 종중하고 정수리에 있다. 목은 길지 않고 근육이 잘 발달했다. 꼬리는 없거나 5cm 이하이며 꼬리 끝부분에 긴 털이 나 있다. 기질이 온순해 사람과 잘 어울리고 복종심이 강하며 사냥에 아주 능하다.

일제강점기에 동경이는 일본 신사에서 볼 수 있는 상스러운 개의 형상인 고마이누와 닮았다는 이유로 학살당해 멸종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이후에도 꼬리가 없거나 짧은 '기형이다', '재수가 없다'하여 천대를 받고 죽임을 당하면서 숫자가 급속도로 감소해 왔다.

2005년에는 경주시와 서라벌대학 동경이보전연구소가 동경이를 보호하고 천연

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 종전 사육시설을 건립했다. 2009년에는 사단법인 한국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가 설립되어 동경이 보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에는 한국예천협회(KKC)로부터 진돗개, 풍산개, 삼살개에 이어 한국견제4호로 등록인증을 받았다. 2012년 11월에는 드디어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되었다. 경주 관광의 기회가 생긴다면 반드시 우리 민족의 전통이 살아 있는 양동마을을 찾아 동경이를 한 번 구경해 보자. 처음 보는데도 무척 친근하고 다정하게 느껴진다.

<당감동 박정도>

독자서평

(조엘 디케르/문학동네 2013)

자신의 일상에

사건 사고가 없

다는 것이 행복

의 척도가 될 수

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사건사

고가 살아있음의

반증이라고 말하

는 것 억지이다.

사람들은 무사평온과 그 평온에 갇힌

약간의 기분 좋은 울림을 주는 사건이 일

어나기를 바란다. 단, 그것이 나의 삶일

경우에도 무방하다.

내 삶에서 사건사고 없는 일상은 평온

함이지만, 타자들의 삶으로 건너가게 되

면 그것은 무료함이 된다. 그러므로 내

삶이 아닌 삶은 조금은 비극적이어도 되

고, 삶을 통해로 삼켜버리지 않을 만큼

슬퍼져도 무방하다.

그가 겪는 슬픔이나 비극은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어야 하는데, 그건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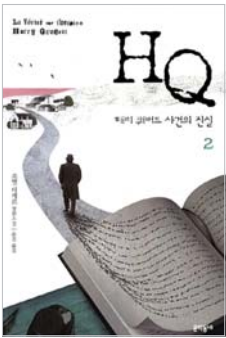
것이 아닌 삶에게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포츠이다. 하지만 실재가 아닌 세

계에서는 충분히 극적이거나 비현실적

난이 끼어들수록 좋다. 가상의 인물들이

슬픔과 애痛, 삶의 비정함이나 죽음을 경



HQ 해리 쿼버트 사건의 진실

합할수록 사건의 비현실성을 인정하면서 도 바로 그 비현실성 때문에 독자들은 더욱 그것을 원한다.

"이건 꿈이야"라고 중얼거리며 계속 꿈을 꾸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말도 안돼"라고 말하면서 이 소설을 손에서 뗄 수 없다. 꿈에서 깨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꿈속의 나'와 '꿈꾸는 나'가 혼전하며 작동하는 욕망이듯 책에서 손을 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독자의 욕망인지 소설가의 의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소설이 독자로 하여금 무엇을 건드리게 한다면, 그래서 끝까지 손을 놓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대중소설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성공한 셈이다.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다. 첫 소설로 일각 스타덤에 오른 젊은 소설가 마커스는 두 번째 소설을 집필하려고 하지만 아무 것도 쓰지 못하고 있다. 계약 기간 안에 책을 출간하지 못하면 소속사에 의해 계약파기로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한 마커스는 스승인 해리가 사는 오로라로 가서 그 곳에서 글을 쓰고자 한다.

그러던 중 해리의 집 마당에서 33년 전 실종된 소녀의 백골이 해리의 데뷔작이자 해리를 스타로 만들었던 소설의 원고와 함께 발견된다. 당시 15세였던 소녀 놀라와 사랑에 빠졌던 해리가 범인으로 지목

되고, 미국 전역에서 존경받는 교수이자 소설가인 해리의 삶에 위기가 닥친다.

마커스가 해리를 위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가는 과정 속에서 15세 소녀 놀라를 중심으로 정교도적 마을 주민들의 욕망과 질투, 위선 등 이중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본의 논리를 철저히 신봉하는 출판업자는 놀라의 실종사건을 소설화할 것을 권하지만, 세속적 욕망 안으로 끌려들어 갈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해리와 우정과 소설가로서의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마커스는 갈등한다. 결국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해리는 무명을 벗었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상처가 모두에게 남는다. 상처받지 않은 것은 오직 대중의 욕망을 찾아다니는 자본뿐이다.

이 소설의 힘은 서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구성력은 오히려 현실감각을 떨어뜨린다. 주인공 마커스의 처세와 오로라가 간직한 몽유병적 실종사건의 틈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소문, 오해, 거짓, 삶의 우연성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진실과 거의 일치한다. 진실은 발생되는 순간 진실로서의 수명을 다하고, 오직 죽은 문자로만 존재하게 되는데 이 소설에서 진실은 발생되지

못한 채 억지스러운 사건 아래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은 그 말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문자만이 율령처럼 남아서 사람의 흔적을 일깨우듯이 말이다. 마커스가 파헤치는 진실이란 사랑의 고백처럼 사라진 진실의 흔적에 불과하고, 그가 미처 붙잡지 못한 것들이 진실의 맨얼굴일 가능성이 크다. 마커스는 항상 진실보다 한발 늦게 도착하고 진실의 그림자를 쫓아다닌다. 게다가 오로라 주민들의 개별적 진실은 마커스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이 혼란은 마커스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자본을 쫓는 출판업자와 결속한다.

놀라 실종 사건을 소설화하겠다는 출판업자와 제계약을 한 이후, 사건이 혼란에 빠질수록 출판업자와 마커스의 목적지는 '미리' 열광한다. 결국 출판업자와의 계약은 독자들의 열광을 생산해 낸 마커스가 피할 수 없는 자신의 맨얼굴이다. 소설의 각 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해리가 마커스에게 들려준 글쓰기 지침은 마커스의 맨얼굴을 가져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기억 속에 가려있는 몽상적 율령처럼 허망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독자들은 마커스의 갈등을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 그것이 가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속아준다. 그리고 마커스의 해리에 대한 우정을 믿어주고 싶어 한다. 그것은 자본은 결코 동거할 수 없는 잃어버린 인간성에 대한 함구일 것이다.

<서평가 노정호>

2015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안내

부산진구 생활체육회에서는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2015년도 생활체육교실 일정표(하반기 3차)

종목	기간	요	시간	장소	모집인원
골프	11.9. ~12.25.	월, 수, 금 (주3회)	10:00 ~ 11:00 11:00 ~ 12:00	CBS골프아카데미 (CBS왕송동내)	15명
댄스스포츠	11.3. ~12.18.	화, 목, 금 (주3회)	10:00 ~ 11:00	이스트댄스스포츠	50명
탁구 (오전반)	11.2. ~12.18.	월, 수, 금 (주3회)	10:00 ~ 11:30	부산진구청 지하1층 탁구장	20명
요가 (오후반)	11.2. ~12.18.	월, 수, 금 (주3회)	14:00 ~ 15:30	부산진구청 지하1층 기체조실	25명
배드민턴 (초심반)	11.3. ~12.18.	화, 목 (주2회)	09:00 ~ 10:00 10:00 ~ 11:30	부산진구생활체육센터 (황령산로포조공원내)	20명
배드민턴 (중급반)	11.4. ~12.18.	수, 금 (주2회)	14:30 ~ 15:30	부산진구생활체육센터 (황령산로포조공원내)	30명

■ 2015년도 웰빙교실 일정표(하반기 3차)

종목	기간	요	시간	장소	모집인원
요가 (오전반)	11.2. ~12.18.	월, 수, 금 (주3회)	09:30 ~ 11:00	부산진구청 지하1층 탁구장	25명
바디펌프	11.3. ~12.18.	화, 목 (주2회)	10:30 ~ 11:30	부산진구청 지하1층 기체조실	20명
웰빙체조	11.3. ~12.18.	화, 목 (주2회)	10:30 ~ 11:30	부산진구청 지하1층 탁구장	20명
탁구 (오후반)	11.3. ~12.18.	화, 목 (주2회)	14:00 ~ 15:30	부산진구청 지하1층 탁구장	20명
댄스 (오전반)	11.3. ~12.18.	화, 목 (주2회)	14:30 ~ 15:30	부산진구청 지하1층 기체조실	20명
성명체조	11.3. ~12.18.	화, 목 (주2회)	15:30 ~ 16:30	부산진구청 지하1층 기체조실	20명

■ 접수기간 : 2015년 10월 26일 ~10월 30일 (선착순 마감)
■ 접수처 : 부산진구생활체육회 사무실 (부산진구청 13층)로 직접 방문접수(부산진구주민만 가능, 신분증 반드시 지참)
■ 문의처 : 부산진구 생활체육회 ☎605-4999, 804-9898
※ 종목, 수강요일, 장소, 인원, 시간 등 현지사정으로 취소 또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년만에 졸업하는

예원 어머니 중(고등)학생 모집

어머니만의 전용 공간을 갖춘 유일한 학교

정규졸업장 수여 오전(10시) 오후(2시) 야간(6시)반 선택 가능

84세 할머니가 대학 입학했다고 신문에 난 학교가 바로 예원여자고등학교입니다.

예원여자중학교(2년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이면 누구나 입학 가능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전액 국고지원(무료)

예원여자고등학교(2년제)

-중학교를 졸업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입학 가능
-졸업시 100% 대학 진학 가능(무시험)
-기초생활수급자, 농어민 수업료 전액 지원
-입학 학생에게 연간 약 90만원 수업료 지원 예정



어머니들의 수업현황

졸업식

컴퓨터 수업

찾아오시는 길

노전선부 42(남구), 99(부산진시장), 179(당감동) 마을버스 6(온전장역) 지하철 4호선 금사역

위치 금정구 금사동(회동동 골다리 위)

전화 (051)526-1852 (051)529-4430

요리강좌

쉽게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요리전문 학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국비교육

▶한식&양식 구직자 취업과정 개강: 12. 7~3. 7(오전반 10시~1시)
▶한식조리기능사 개강: 12. 21~2. 18(오후반 2시~5시)
▶수업과정: 월요일~금요일-1일3시간/주요일 수업/10명 남-녀 선착순모집
▶특 전: 수료증수여, 교통비 지급, 수료후 취업알선 및 장학생선발, 교재 무료제공

재직자(근로자직업능력개발) 국비교육

▶한식조리기능사(실기) 개강: 12. 14~2. 4
▶양식조리기능사(실기) 개강: 12. 14~1. 21
▶교육일정: 저녁6시50분~8시50분 (월요일~목요일)/1일2시간수업
▶모집인원: 정규직&비정규직 10명 남-녀 선착순
▶특 전: 실기교육 무료제공, 이론요약집 무료제공, 수료증수여, 본인부담금40%(20만원)

중·고교·대학생 모집

▶개강일: 상시 개강(기초수업실시)
▶모집과목: 한식/양식/중식/일식/북아 요리기능사
▶특 전: 6개월 학기반/1년 정규반 운영/실전모의test/장학생선발 test/1:1전담지도
특별전형으로 고등학교 입학가능/원장추천서로 대학교 우선 입학가능(전국19개교)
부족한부분을 보완하는 맞춤형 기초수업 실시

www.topcook.co.kr

전국 어디서나 일류요리(1588-1652)

전국 총 51개 지점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관음식나라조리학원
문의 ☎644-2111(지하철 범내골역 1번 출구)

강좌명	운영시간	수강료/교재	인원	운영횟수
IT틀라자 (한국 중급)	수, 금 10:00~12:00	무료	15명	주2회
IT틀라자 (스마트폰 활용)	수, 금 12:30~13:30	무료	15명	주2회
개그마일도서관	월~금 10:00~17:00	회원가입 후 무료 이용	유아~초등	주5회
초록초사단 (환경개선 프로그램)	토 09:30~12:00	무료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중학생 12명	주1회

강좌명	운영시간	수강료/교재	인원	운영횟수
성인 사문자교실	수, 금 10:00~12:00	20,000원	15명	주2회
노래로 부르는 영어동화	금 15:30~16:30	30,000원 (교재+CD+워크북 14,000원)	15명	주1회
장애인 직업 훈련 프로그램 '무한도전'	월, 수 16:00~18:00 (월, 수, 금 17:00~18:00)	무료	고등2,3학년 자폐성지적장애인 10명	주2회
장애인사회생활 향상 프로그램 '동그라미교실'	화, 목 16:30~18:00	80,000원	지적장애성 장애인 5명	주2회
여성장애인의 공동생활가정 '이슈타의 집'	월~토 17:00~09:00	월 20만원	여성장애인 2~3급 장애인	주6일

강좌명	운영시간	수강료/교재	인원	운영횟수
목아유평대어점 '예코예절'	화~토 10:00~16:00	가임반:1만원 대어류:2천원~	-	주5일
주민이 만드는 지역신문 기자단 모집	수시 (가야, 범천동)	무료	10명	월1회
호전성품 문화인(개소식 및 흥천마을 북이벤트)	10월 31일 (토) 10:00~19:00	무료	500명	1회

강좌명	운영시간	수강료	인원(대상)	운영횟수
창의교구 수학교실	토 10:00~10:50 토 12:00~12:50 토 11:00~11:50	60,000원 (교재비1만원)	10명(7세~10명(초1~2) 10명(초3~6)	주1회
"특강" 소프스스테인	11월 23일(월) 17:00~18:00	무료	7세~초등	주1회
생활미술	금 13:30~15:00	40,000원(3개월)	10명(성인)	주1회
금리송	목 13:30~15:00	20,000원(3개월)	20명	주1회
직장인(3)인 화요가	월, 수 18:40~19:40	80,000(3개월)	20명	주2회
미술	토 12:00~12:50 토 11:00~11:50	60,000원(3개월)	15명	주1회

부산진구는 내 고장에 얹힌 이야기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 부산진구 야담집을 발간기로 하고 10월 20일 까지 야담을 공모했습니다. 아래의 글들은 이번 공모에 접수된 글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부산진구신문은 접수된 작품을 매월 지면에 소개할 계획입니다.

—편집자 주—

당감동 화장터에서 한밤의 담력대결

나는 당감동 토박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며 지금부터 55년 전 이야기다.

친구 6명이 모여 누가 가장 간이 큰지 내기를 하였다. 내기의 방법은 비오는 밤에 화장막, 혹은 화장터에 갔다 오는 것이었다. 맨 처음 친구가 가서 신발 한 짝을 놓고 오면, 다음 사람이 그 신발을 가져오고 자기 신발 한 짝을 놓고 온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된 일종의 담력대결이었다.

그 당시의 화장터에서는 화장 후 인분을 갈아서 그 주변 산에 뿌려놓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의 밤이면 유골 가루가 날려서 마치 귀신이 다니는 것처럼 보이곤 했다. 그 때문인지 모두들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화장터에 갔다 오는 대결을 했던 것이다. 그것도 초등학교생들이...

게임이 시작되고 신발을 가지러 가기 위해 놀이터에서 출발한다. 극락다리 쪽 도착하게 되면 급격히 무서워진다. 극락다리는 옛날에 꽃 상여를 메고 가거나, 영구차가 지나갈 때 꼭 쉬어가는 곳이었다. 이곳에 상여꾼과 영구차 기사가 노잣돈을 받기 위해 상주와 흥정을 하던 곳이기도 하였다.

화장터까지 가는 와중에 누가 꼭 뒤에서 붙잡을 것만 같은 느낌이 자주 든다. 힐끔 뒤돌아본 후 큰 맘을 먹고 정신없이 달렸다. 어느



1960년대 당감동 화장터 일대. 오른쪽 뒷부분이 화장터다.

덧 저 입구에 친구의 신발 한 짝이 보인다. 내 신발 한 짝을 놓고 일론 친구의 신발로 갈아 신고 난 뒤에 정신없이 내달린다. 마치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화장터에 갔다 오는 대결을 했던 것이다. 그것도 초등학교생들이...

그런데 사체가 일어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시신을 태우다 보면 시신이 변형되면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무서운 광경을 보다보면 작시가 일어날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화장터에서 시신을 태우던 중 시신이 일어난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실제 우리도 그런 일을 겪었다. 친구들이랑 화구 뒤쪽 구멍으로 시신 태우는 모습을 보던 중 한 친구가 공포 때문이었는지 ‘사체가 일어나다’며 소리쳤다. 모두들 혼비백산하여 ‘걸음이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쳤다.

한밤의 담력대결 외에 한낮의 화장터에 얹힌 추억도 있다. 낮에는 화장막에 가서 화구 뒤쪽 구멍으로 시신 태우는 모습을 보곤 하였다. 아마 근무자가 화구 구멍을 보고 연료를 조절하곤 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사체가 일어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시신을 태우다 보면 시신이 변형되면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무서운 광경을 보다보면 작시가 일어날 수도 있

<췁해설가 김광식>

전포동 수호신 ‘전라선생’ 을 아시나요?

“황령산에 산불이 발생해도 전포동 인근 마을까지는 산불이 번지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아들이 없어서 고민하던 마을 주민이 어느 묘소에 비석을 설치한 뒤, 아들을 낳았는데 그 묘소가 누구의 묘소인지 아시나요?”

이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전포동의 수호신 ‘전라선생’의 묘소이다.

‘전라선생’ 묘소는 1960년대 전포1동에 살던 전라도 출신의 한 남성의 묘소로 알려져 있다. 후손도 없고 성과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단지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했다는 것만 알려져 ‘전라선생’으로 불렸던 분이 1960년대부터 지금의 부산진구 서전로68번길 43-1(전포동)에 거주했다. 전라선생은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아간서당을 열

어 지역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등의 선행을 베풀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전라선생은 1970년에 작고하면서 자신이 기거하던 130여 평의 부지를 마을에 기부했다. 현재 이 부지에는 새마을 노인대학과 본동 경로당이 들어서 있다.

이후 뜻있는 마을 주민들은 전라선생의 넋을 기리고, 연고도 없는 부산지역에 와서 선행을 베풀고 간 고인의 고마운 마음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 ‘가족이 없어 떠도는 외로운 혼령을 인연이 맞는 이가 찾아 제사를 지내준다’는 음력 9월 9일을 택하여 해마다 황령산 중턱에서 제례를 지내고 있다.

그로부터 전포1동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제례를 지내기 전 황령산에는 해마다 산불이 나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첫 제례를 지낸

1979년 이후부터는 황령산에 산불이 나도 전포동 인근 마을에는 산불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전포동의 수호신이라 할 수 있는 전라선생 덕분인지 2015년 1월 1일자 전포1·3동 통합 후에도 주민들 간에 화합이 잘 되고 있으며 전라선생에 대한 존경심이 지역의 영호남 화합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전포1동 통장협의회는 전라선생의 아름다운 선행과 공덕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전포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를 비롯한 유관단체, 전포1동주민센터, 주민 등과 함께 해마다 전라선생 추모제는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추모제 전에 묘역을 정비하고 벌초도 함께 하고 있다. 전라선생 추모제는 이미 전포1동의 전통이 되었다.

<전포동 박병가>

당감동 지역 초등학교생들의 놀이

예전에 당감동에는 광산이 많았다. 1950년대 시립화장터가 당감동으로 이전해왔다. 당감동 화장터는 지금의 개성고등학교 자리다. 화장터에 학교를 지으려 재수가 좋아진다는 속설이 있어서 학교가 들어선 것 같다.

이 화장터에서 조금 내려오면 광산촌이 나온다. 지금도 광산촌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데 아마도 일제시대에 금광을 캔 굴일 것이다.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현재의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 아이들이 많아서 수업을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2

일제시대 광산 많아

동굴에서 밀 구워 먹기

기차레일에 대못 놓아

압착후 칼 만들기 유행

부제로 진행했다. 학교는 많은데 학생 수가 적은 요즘에는 이해하기 힘든 풍경일 것이다. 2부제 수업은 그 뒤로도 한동안 계속 됐다.

오전반 때에는 방과 후 아이들과 모여 그 굴에 가서 서리해 온 밀을

나뉘먹곤 했다. 밀밭에서 밀을 들고 와 굴속으로 들어가 불을 피운 다음 밀을 구워먹는 것이다. 밀을 굽다가 연기가 굴속으로 밀려와 연기에 취해 혼란 적도 있었다. 그 당시의 밀서리를 해먹던 맛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어찌나 맛이 좋던지 얼굴에 온통 새까만 점점을 묻히고도 참 많이도 구워먹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유일한 간식거리가 아니었나 싶다.

광산 조금 위쪽에 폭포가 있었다. 거기서 다이빙도 하고 수영도 하면서 참 재미있게 놀았다. 그리고 지금 진양사거리 쪽에 있는 철

길에서 위험한 놀이를 많이 하곤 했다. 당시 진양사거리 쪽에 있는 철길의 밑은 도로였고, 위쪽은 철길다리였다. 친구들끼리 철길을 건너다니는 위험한 놀이를 하곤 했었다.

그리고 일명 ‘못갈’을 아는가. 레일 위에 못을 놓아두면 기차가 지나가고 난 후 기차바퀴에 못이 납작하게 눌러져 마치 칼처럼 만들 어지곤 했다. 주로 대못을 많이 사용했다. 그것으로 장난감 칼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여러가지 도구를 만들어 쓰기도 하였다.

아마 지금 현재 나이로 치면 30대, 생년으로 치면 70년대 출생이면 다들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을리라 생각한다.

<췁해설가 김광식>

부암고개 오르막의 기억

1960년대 당시 필자의 집은 지금의 당감동 삼악아파트 자리였다. 옛날엔 통신기차장 부대 정문 앞, 일제시대 철도관사가 있던 곳이었다. 이곳에는 두꺼운 콘크리트로 만든 방공호가 곳곳에 있었다. 전신 태우는 모습을 보던 중 한 친구가 공포 때문이었는지 ‘사체가 일어나다’며 소리쳤다. 모두들 혼비백산하여 ‘걸음이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쳤다.

그 당시 필자의 집에서는 학자금 마련용으로 돼지 5마리를 키웠다. 돼지를 키우기 위해 영도에 있는 주정공장에서 주정찌꺼기를 공짜로 얻어와 사료로 사용했다. 일요일마다 아침 7시에 필자와 형님은 리어카에 드림통을 싣고 술빵(옥수수 가루에 소다를 섞어 만든 빵) 2개

와 물을 담고 영도 주정공장으로 출발했다.

형님은 앞에서 끌고 나는 뒤에서 밀며 당감동에서 조방 앞을 지나 부두길 따라서 영도 주정공장에 도착하면 낮 12시가 되었다. 주정을 가득 싣고 영도다리를 들어올리기 전에 빨리 건너와야 했다. 서둘러 다리를 건너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가 틀리곤 하였다. 그땐 영도 다리를 하루 2번씩 들곤 하였다. 술빵으로 점심요기를 하고 부지런히 걸어야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는 부암고개 근처에 오면 지쳐서 기진 맥진하곤 했다. 지금은 부암고개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많이 깔려 평길에 가까워졌지만 그 당시엔 오르막이 상당히 높은 고개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부암고개를 직선으로



1960년대 부암고개(현재 부암새교개)

오르지 못했다. 지그재그로 고갯길을 올라가야 했다. 그러다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 형제가 딱하게 보였던지 수레를 밀어주기도 하였다. 집에 도착하면 저녁 6시, 거의 파김치가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형은 중학교 2학년이고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영도에서

당감동까지 그 무거운 주정찌꺼기를 가득 담고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지금도 튼튼한 다리로 잘 걷을 수 있는 비결이 그 당시 부암고개를 오르내리며 단련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본다.

<췁해설가 김광식>

고대리 명당(古代里 明堂)

옛날부터 이름난 고대리 명당(古代里 明堂)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치로는 부산진구 백양대로 18번길에 있는 부암동 산223번지 일대 지역이 고대리 명당이라고 합니다.

부암동 산223번지는 전 삼상하고 무 김지태 회장 명의의 임야로 6.26전쟁 발생 전까지는 논과 밭이 있었고 성지곡수원지 물로 농사를 지었답니다.

6.25 전쟁 이후로부터는 피난민들이 판자촌을 이루고 수백가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피난민들은 남의 땅에 불록과 슬레이트로 판자집을 단독 주택으로 개조,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는 주거지로 번모하게 됩니다. 이후 1970 이들은 추모제 전에 묘역을 정비하고 벌초도 함께 하고 있다. 전라선생 추모제는 이미 전포1동의 전통이 되었다.

것입니다. 이 상태로 40여년이 지난 2015년 봄이 되어서야 ㈜동일서면파크스위트3차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어 이 일대가 아파트가 들어설게 되었습니다.

1960년부터 1980년도까지만 해도 고무공장, 신발공장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가 꽉 차서 밀려갈 정도로 주민들이 많이 살았습다. 그러나 진양화학, 동양고무, 태화고무, 삼화고무가 이전하거나 없어지면서 점차 인구도 줄고 한산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암동 산223번지 일대 지역을 가만히 보면 부산의 명당이요, 부산진구의 명당이랍니다. 부암동 미주아파트 상단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북쪽으로는 부암초등학교에서부터 부암감전교까지 산등성을 이루고 있고, 우측으로는 동일협성아파트가 가로, 세로를 막고 있습니다. 부암동 산223번지 일대

는 그 양쪽의 중간지역에 자리잡은 안락한 명당지리입니다.

풍수지리적으로 보면 백양산 아래 좌로는 청룡형이요, 우로는 백호형인 이 지역이 바로 고대리 명당입니다. 이곳이 명당이어서 그런지 동일서면파크스위트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727세대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면 1960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부산시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여 피해가 많았습니다. 불이 워낙 많이 나서 부산이 불산

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암동 산223번지 일대 지역의 소방도로도 없는 수백가구 밀집지역에는 화재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의 운도 좋습다. 남의 땅에 공짜로 무허가 주택을 지어 40~50년 잘 살다가 건물 보상비를 받아 타지로 이사 간 사람이 많습다. 이 점도면 부암동 산223번지 일대 지역은 여러모로 봐서 명당자리가 아닐는지요.

<부암동 오동수>

독자 원고와 사진을 받습니다

부산진구신문은 독자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독자원고와 사진 등을 신문에 게재합니다.

•글/사진파일 보내실 곳 : jinnews@korea.kr

※ 사진파일과 함께 사진설명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내실 때는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주세요.

•문의 : 부산진구신문 편집실 (605-4078), 문화관광체육과 구성홍보계 (605-4071~5)

이륜자동차 안전운행,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약속입니다!

■ 이륜자동차 운행 안전수칙 ■

하나. 횡단보도, 인도주행은 절대 안돼요!!

－횡단보도에서는 이륜자동차에서 내려, 끌어서 이동합니다.
－인도는 보행자에게 양보해 주세요

둘. 안전모는 안전을 위한 필수품!!

－이륜자동차 사고의 70%가 머리손상, 안전모 미착용이 원인입니다.

셋. 정지선 지키기는 필수!!

－정지선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넷. 안전수칙! 이것도 꼭 지켜주세요.

－이륜차도 면허증을 취득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합니다.
－불법구조변경을 해서는 안 됩니다.

50cc 미만도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세요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잊지 마세요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이 적발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난폭운전 NO!! 인도주행 NO!!
부산진구는 이륜자동차 무사고 ZONE을 희망합니다.

※ 문의 : 부산진구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605-4656)

자동차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미 가입기간 및 종류 또는 용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차량 종류	용도	보험	과태료 금액			비고
			10일이하	10일초과 1일당	최 고 한도액	
이륜차	전체	대인	6,000	1,200	200,000	합계 300,000
		대물	3,000	600	100,000	
자동차 건설기계	비사업용	대인	10,000	4,000	600,000	합계 900,000
		대물	5,000	2,000	300,000	
	사업용 (영업용)	대인1	30,000	8,000	1,000,000	합계 2,300,000
		대인2	30,000	8,000	1,000,000	
		대물	5,000	2,000	300,000	

※ 자동차보험 종류별이 공휴일(토요일/일요일/법정휴무일 포함)인 경우 보월종료일 전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의무보험은 종료일 이전에 반드시 가입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하지 맙시다.★

※ 문의 : 부산진구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605-4654, 4652)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하면 강제로 폐차 또는 매각 조치 됩니다.

■강제처리 대상이 되는 경우는

-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골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입니다.



(단위 : 원)

구 분	법칙금액		
	승용 및이륜차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경·소형	중·대형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200,000	200,000	300,000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0,000	1,000,000	1,000,000

■법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문의 : 부산진구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605-4655)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는

정해진 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는 국민의 생명보호, 대기환경 개선, 운행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유효기간

구 분		유효기간	구 분		유효기간
승 용	비사업용	2년	사업용	차령 2년이하	1년
	사 업 용	1년	대형화물	차령 2년초과	6개월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		1년	그 외	차령 5년이하	1년
				차령 5년초과	6개월

■검사지연 과태료

(단위 : 원)					
경과일수	금액	경과일수	금액	경과일수	금액
1~33일	20,000	40~42일	50,000	112~114일	290,000
34~36일	30,000	43~45일	60,000	114일 초과	300,000
37~39일	40,000	46~48일	70,000		

■과태료 미납 시,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 형사고발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문의 : 부산진구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605-4651)

‘10월의 마지막 밤’ 서면으로 오세요

서면문화로에서 거리공연

소민아트센터에서 음악회

부산진구는 문화의 달인 10월의 마지막 날 저녁에 서면문화로를 문화 중심지로 활성화시키고 구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거리로 만들기 위하여 거리공연과 음악회를 개최한다.

10월 3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의 영광도시 맞은편 서면문화로 분수대 앞에서 거리공연을 개최한다. 거리공연에는 여성 2인조 레이디핑크가 출연해 발라드 등 추억의 대중가요를 부를 예정이다.

오후 6시부터는 영광도시 옆 소민아트센터에서 클래식 음악회가 개최된다.

클래리 음악회에는 첫 순서로 아리고 북탐이 출연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난타 공연을 펼친다. 이어 아라베트 제즈팀과 효산가야금 연주팀, 테너 조윤환, 소프라노 권미현씨가 출연한다. 또 플루트·클라리넷, 첼로·피아노 협연이 준비되어 있고 전태영&안나 부부듀엣이 출연해 ‘시월의 마지막 날’이던 여김없이 등장하는 대중가요 ‘잊혀진 계절’과 당신은 내사랑, 당신이 좋아 등을 부른다.

문의 : 문화관광체육과 관광진흥계 (605-4522), 예술진흥계 (605-4632), 소민아트센터 (991-2200)

노래하는 남자들 박력 있고 유쾌한 무대

제2회 부산진구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성향’

부산진구 남성합창단이 깊어가는 가을 밤에 박력있고 유쾌한 무대를 선사했다. 남성합창단은 10월 15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구청 대강당에서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합창단은 첫 순서로 ‘우정의 노래’ ‘세 바보 이야기’ ‘선라이즈 섀넌’ 등 3곡을 들려줬다. 이어 우정출연한 피오레여성합창단이 ‘이느 산골 소년의 사랑이야기’와 ‘최진사택 셋째 딸’을 합창하며 정기연주회를 축하했다.

남성합창단은 이어 ‘강건너 봄이 오듯’과 ‘가치신 옥새바람’ 등 새로운 곡을 선보였다. 이어 편곡된 ‘The Drummer

And The Cook’과 ‘살짜기 읊서예’를 들려주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다음 순서로 초청무대가 이어졌다. 부산시립합창단의 김나영 소프라노가 출연해 ‘수선화’와 오페라 로마리오와 줄리아에 나오는 ‘아! 이 꿈속에 살고 싶어서’를 들려주며 가을밤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남성합창단은 끝 순서로 ‘동보세’와 ‘세시봉 메들리’ ‘화개장터’를 불러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관객들의 환호와 요청에 따라 남성합창단은 ‘배기의 추억’과 ‘오 솔레미오’ 등 3곡을 연골하며 정기연주회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문의 : 문화관광체육과 예술진흥계 (605-4631)



부산진문화원 ‘은빛나타반’ 왕성한 활동

병원·각종 기념식 등에서 공연

부산고등어축제에서 우수상 수상

부산진문화원이 자랑하는 은빛나타반이 왕성한 공연활동을 벌이고 있다. 은빛나타반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1회 2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은빛나타반은 그동안 실력이 향상되어 경로당과 요양병원 등 문화소의 계층을 찾아 나눔의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7월 부산진구청에서 실시한 양성평등주간기념식 행사와 10월 8일 부산진 평생학습박람회 폐막식 공연에 참가했다.

특히 10월 17일에는 송도해수욕장에서 개최된 제8회 부산고등어축제-주민자치·평생학습 경연대회에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해 상금 30만원을 획득한 바 있다. 은빛나타반은 앞으로도 부산진문화원원 홍보와 문화소의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및 공연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문의 : 부산진문화원 (817-9650)

동길산 시인이 쓰는 부산진이야기 10

가야동

부산진구 역사는 대단히 유구하다. 패총이 있었고 고분군이 있었고 성터가 있었다. 유구한 역사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지명이 가야동이다. 부산진구 가야와 김해 가야는 한자도 같다. 伽倻. 부산진구와 가야는 거리가 꽤 떨어져있는데 왜 같은 이름을 쓸까. 우연일까. 우연일 수도 있지만 천년만년 가는 지명을 마구잡이로 지지는 않았을 터. 그 인을 들여다보자.

우선, 부산진구 가야는 언제 지명일까. 언제부터 썼다는 기록은 없지만 몇백 년 전 책에 버젓이 나와 있다. 1740년 발간된 ‘동래부지’ 제6조 각면거리원근정도(各面各里遠近程道) 항목에 ‘동평면 가이리는 (동래)관문에서 20리’ 거리에 있다고 명기한다. 1740년이면 거의 300년 전. 그러니까 부산진구 가야는 최소한 조선시대 지명이며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그 훨씬 이전으로도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동평면은 무언가. 얼핏 들으면 생소한 지명이지만 당감동 일대 주민에게 생소하지 않다. 친숙하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잘 안다. 대표적인 게 당감4동 동평초등학교다. 동평상가도 있고 동평유치원도 있다. 1740년 조선시대 책자에 나오는 지명이 지금도 우리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쓰인다! 역사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감동시킨다.

조선시대 부산 중심은 동래였다. 동래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으면 동면, 서쪽에 있으면 서면, 그리고 남면과 북면을 두었다. 동서남북에 들지 않는 지역, 가령 낙동강 사상 사하지역은 모래 사



씨 사면(沙面)이라 했다. 동평면(東平面)도 두었다. 동평면은 꽤 컸다. 1904년 동래군 12면 가운데 동별 가구수가 읍내면과 북면 다음으로 많았다. 19동 730호였다. 중심지역이 당감동과 개금, 가야 일대였다. 낙동강과 맞닿은 구포도 동평면에 들어갔다.

동평은 무슨 뜻일까. 부산진구청이 2010년 발간한 구지(區誌) ‘내 사랑 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를 참고하면 되겠다. 우리나라를 뜻하는 해동(海東)과 평화를 즐긴다는 뜻인 가평(嘉平)을 합친 설이 있다고 소개한다. 바다와 동천이 가깝고 낙동강과 접했던 곳 동평. 해동의 평화스러운 곳이 동평이었고 그 중심이 지금의 부산진구였다.

낙동강과 접했던 동평. 부산의 중심지는 동래였지만 동평면 당감 개금 일대 생활권은 낙동강에 가까웠다. 낙동강 저쪽 김해와도 가까워 강 하나를 사이에



서 사돈을 맺기도 했을 것이고 호형호제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던 차에 신라 침범으로 동래가 정복되고 부산이 정복되면서 동평 역시 수모를 겪는다. 그게 아니꼬워 일부는 강 건너 김해 가아로 넘어갔을 것이고 남은 사람은 반골이 되었을 것이다. 신라 관리에게 뒷세를 부렸을 것이다.

‘동평현은 부산의 근본지이다. 본래 대증현(大甍縣)이라 했으나 신라 경덕왕 16년에 동평현이라 고쳤다. 부산이란 이름도 동평현 관내에 있는 산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며...’ 당감4동 어모장군단 비문 일부분. 어모장군은 설명이 길어지니 다음으로 미루자. 경덕왕 16년은 서기 757년. ‘동래’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한 해다. 대증현도 동평현으로 개칭하고 동래 속현이 된다. 1547년 동래가 도호부로 승격되면서 동평현은 면으로 승격한다. 19세기 동평면은 부산면과 동평면

으로 나뉜다. 나뉘기 전에는 수정동도 동평에 속했다. 수정동 증산의 옛 이름이 부산. ‘동평현은 부산의 근본지’라는 대목은 그래서 나온다.

부산진구는 반골 기질이 강하다. 일제강점기 부산상고 항일학생운동,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박재혁 의사, 4·19의 불꽃 경남공고 감수영 열사 등들이 그것을 입증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질은 하루 아침 이뤄지지 않는다. 세월이 울음이 쌓이고 겹겹이 차여 기질은 완성된다. 가이린 지명에는 오랜 세월 쌓이고 차여 탄탄해진 부산진구 반골 기질이 짙게 녹아 있다. 나라는 빼앗겨도 정신까지 빼앗기지 않겠다는 저항정신 상징이 가야야. 부산진구 유구한 역사와 부산진구 반골 기질이 가야시대 금관처럼 반짝이는 곳이 가야동이다.

dgs1116@hanmail.net

한국전통공연의 진수 ‘왕비의 잔치’

국립부산국악원 무용극

‘아름다운 공연’ 입소문

부산 대표 공연으로 성장

12월 27일까지 공연기로

국립부산국악원 (원장 서인화)이 만든 ‘왕비의 잔치’가 부산의 대표 공연으로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왕비의 잔치는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한국 전통공연예술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된 작품이다.

국립부산국악원은 지난 7월 28일 시연회를 통해 ‘왕비의 잔치’를 선보였다. 왕비의 잔치는 첨단 무대스크린 연출 기법과 전통음악인 국악이 어우러지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보여준다.

특히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왕비가 전통의상을 입는 퍼포먼스는 관객의 탄성을 자아내며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또 춘앵전, 무산환을 비롯한 궁중재와 고성말뚝이를 볼 수 있고 아미농악과 밀양백중놀이 등 신비롭고 아름다운 한국 전통문화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공연을 관람한 국내외 관광객들은 “정말 아름다운 공연이었으며 주변 사람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왕비의 잔치는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저녁 8시, 주말·공휴일 오후 5시에 해운대그랜드호텔 왕비의잔치 전용극장에서 12월 27일까지 공연된다.

공연료는 전석 20,000원(정가)이며 국립부산국악원 누리집(busan.gugak.go.kr)과 인터파크(w.w.w.ticketpark.com)에서 예매 가능하다.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 연장 안내

공연·전시·영화관람 및 음악·도시구입,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의 발급기간이 연장됩니다.

○발급기간 연장 :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 연장 : 카드 발급일~2016년 1월 31일까지

○발급대상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6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등이며(스포츠장과 이용권과 중복복혜 불가) 개인별 연장 5만원 지원

○문 의 : 문화누리카드 콜센터(☎1544-3412), 부산문화재단(☎745-7263~4)

맞춤농공장

작은방 넓게(슬라이딩 농)

침대 29만원

식탁 19만원

쇼파 38만원

장농 58만원

책상 10만원

2층 사무가구
에몬스가구

영업시간 09:00~20:00(연중무휴)
T.628-1806

대연 롯데백화점 정류소 앞(남구 수영로 202-1)

부산진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수강신청기간 : 2015. 10. 19(월)~개강 전까지 ▶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 1) 온라인신청 : 부산진구 평생학습관(http://lll.busanjin.go.kr)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수강신청
- 2) 방문신청 : 부산진구 평생학습관(부산진구청 11층)

○수강료 : 무료(단, 과정별 실습비 및 교재비 등 학습자 부담)

○교육장소 : 연산국제제빙커뮤니티 또는 부산진구 평생학습관

○유의사항 : 과정별 모집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음

○프로그램 현황

(※ 전 교육과정 수강료 무료, 단 실습비 및 교재비는 학습자부담)

프로그램명	교육일시	대상인원	교육장소	교육내용	수강료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 (2급 자격증)	11.13~12.18 주2회 (목·금) 14:00~17:00 11강 (33h)	부산진구 주민, 16명	연산국제제빙커뮤니티	커피학 개론, 로스팅 등	실습비 (150,000원) 교재비 (28,000원) 자격검정료, 인증서발급비 별도
꿈꾸는 엄마! 파티시에르 도전!	11.9~12.1 주3회 (월·화·수) 10:00~13:00 11강 (33h)			쿠키, 머핀, 단말빵 만들기 등	재료비 (150,000원)
그림책으로 우리 아이 마음 읽기	10.30~12.18 금 14:00~17:00 12강 (36h)			별달라게에 맞는 그림책 선정, 그림을 통한 상담 등	재료비 (20,000원)
부산진구 행복학습 매니저 양성 과정	11.2~12.21 주2회 (월·수) 13:00~16:00 15강 (45h)	부산진구 주민, 20명	부산진구 소재 직장인 평생학습관	홍보적인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전략	-
एको 키즈와 생애놀이 지도자 양성 과정	10.27~12.22 화 13:00~16:00 12강 (36h)			숲 치유놀이 프로그램 이론, 실습, 신림치유 등	재료비 (30,000원)
우리 엄마는 평화使者	11.5~12.24 목 10:00~12:30 8강 (20h)			희망에 지쳐있는 아이들에게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엄마 되기 교육 (수업료 무료)	

※ 교육과정별 자세한 세부 수업내용은 부산진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문의 : 부산진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051)605-6381~2

부산포민속박물관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안내

부산포민속박물관(관장 김정민)은 부산시 지원 사업으로 2015년 토요일문화체험프로그램과 자체 문화체험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 토요문화 체험교실(부산시 지원사업)

- 목 적 : 우리 박물관에서는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에 따라 어린이 및 가족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교육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가정으로 어린이들의 우리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데 있다.
- 교육일시 : 11, 12월(4차) 토요일 오후 2:00~4:00 (격주로 운영)
- 대 상 : 가족동반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 장 소 : 부산포민속박물관
- 참 가 비 : 무료
- 신청기간 : 2015년 10월 27일~10월 30일 오전10시~오후5시(월요일 휴관)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모집)
- 참가신청 : 전화접수 ☎(051)803-4300
- 문 의 : 부산포민속박물관 (051)803-4300
- 체험프로그램 계획

제 목	체험일시
1차	짚풀 계란꾸러미 만들기 체험 11/7 (토요일)
2차	전통 연 만들기 체험 11/21 (토요일)
3차	칠보공예 만들기 체험 12/5 (토요일)
4차	옛날 책 만들기 체험 12/19 (토요일)

—격주로 2개월간 진행되는 연중 교육프로그램입니다.
—4회 모두 참석 가능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10월 28일(수)

부산광역시의회의원재선거 (부산진구제1선거구)

선 거 구 | 부전1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1동, 양정2동

투표시간 | 오전6시~오후8시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투표소 집으로 우송되는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투표소를 꼭 확인하세요.

준 비 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중 하나

선거권자 | 만19세이상 (1996년 10월 29일 이전 출생자)

투표시간
오전 6시
오후 8시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